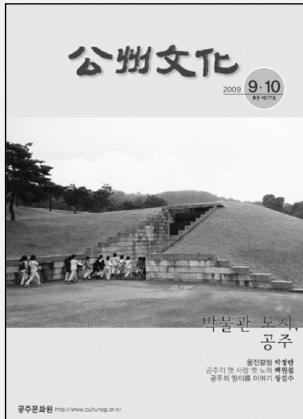


차례

CONTENTS

공주문화 2009년 9·10월호



제자鄭台禧

사진 최근태(공주 송산리고분)

등록번호_충남 라01136(1998.6.1)

발행인_나태주, 편집인_현대수

편집주간_이극래

편집위원_김춘원, 신윙희, 오희숙

편집실무_김민영, 우명란

발행처_공주문화원

314-100 공주시 반죽동 184-2

041 · 852 · 9005 / 852 · 7600

E-mail_8529005@hanmail.net

홈페이지_www.culturegj.or.kr

인쇄처_공주신문사

041 · 853 · 8111

- 02** **웅진칼럼**
자전거를 타면서 하는 생각들/ 박정란
- 04** **특집**
박물관 도시, 공주
- 18** **공주를 사랑한 옛 사람 옛 노래 ⑩**
공주의 선비들 공북루에서 가을을 읊다/ 백원철
- 22** **공주의 땅이름 이야기 ⑩**
샘(우물) 관련 땅이름(1)/ 장길수
- 26** **사진으로 만나는 옛 시간 옛 풍경 ④**
공주영명학당/ 김혜식
- 28** **공주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우성면 한천리(3)
- 36** **공주의 그 인물**
냄새 나는 잡초밭에 땀으로 피운 연꽃/ 이결재
- 39** **시인이 그림다**
향아리/ 임강빈
- 40** **문화부 기자의 돋보기**
유구시장에서 불처럼 뜨겁게 타오른 3.1운동/ 오희숙
- 42** **문화의 향기**
단청, 그 눈물겨운 인생/ 나태주
- 46** **자료발굴**
공주를 소재로 한 가요
- 48** **시정소식**
아름다운 공주
- 51** **내고장 소식**
내고장의 숨소리
- 54** **문화원 소식**
우리 문화원
- 58** **문화원장의 문화일기**
- 60** **독자 페이지**
- 61** **새 책 소개**
- 62** **청소년백일장**
- 64** **편집후기**

자전거를 타면서 하는 생각들

박 정 란

이른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금학동에서부터 제민천 길을 따라 떠나본다. 수원지 생태습지 비오톱 조성사업으로 수질이 정화되어 맑아진 깨끗한 물에 손을 담그고픈 유혹을 느낀다. 그동안은 이 길을 지나며 생활하수에 오염되어 시커먼 이끼, 또한 악취가 심해 언제나 눈살을 찌푸리며 걱정스레 지나가던 길이 아니던가. 이처럼 맑고 깨끗해진 냇가를 보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끼는 아침이다.

승용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고집하는 우리 고장 어느 시인의 마음을 자전거를 타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연료가 들지 않으니 운행비가 안 들어서도 좋을 뿐 아니라 천천히 가다보면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어 좋았다. 지나치는 집들의 아름다운 정원을 엿볼 수도 있고, 집 앞 길을 쓸고 있는 바지런한 아주머니를 만나고, 신문배달원이나 우유배달원을 만나기도 하며 지나치는 길에 얹힌 옛 추억들을 더듬어볼 수도 있으니 그도 좋은 일이다.

예전 대통사 다리 옆 아이스케키 집이었던 자리에는 칼국수집이 들어서 있고 호서극장이 있던 자리를 지나 혈린 제일은행 자리에는 국민도서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많은 옛 기억을 되살려 보는 아침이다. 30여

년 전에는 이렇게 종종 자전거로 직장에 출근을 하고는 했었지.

금강철교 자전거 도로를 따라 강을 건너 둔치에 다다라서는 정안천 생태공원 자전거길로 달려본다. 아!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아름다운 꽃들이 아침부터 환하게 반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갖가지 식물과 많은 종류의 꽃들이 저마다 이름표를 달고 뽐내고 있다.

금계국은 봄에서 초여름까지 오래 피었다가 이제 두 번째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해 각 단체에서 모여 둔치에 금계국을 심던 날, 오후 3시에 얼마나 봄별이 뜨거웠는지, 흐르는 땀을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시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공급해 주었는데도 물은 금방 미지근해졌으며, 땀으로 얼룩진 얼굴이 따가웠다. 참가했던 우리 회원(문인협회)들에게 미안했던 만큼 주최 측이 원망스럽기도 했었다. 왜 이 뜨거운 한낮에 소집을 했는가 하고 말이다. 그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다 보니 옷 속으로도 피부가 빨갛게 익어있었다.

하지만 둔치에 환하게 피어난 꽃들로 인해 금강이 빛날 만큼 더욱 아름다운 것을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도 몇 갑절 더 기쁨이 가슴으로 다가오곤 한다. 꽃이 피어있는 동안 행여 이 아름다운 꽃동산 금계국을 못 본 사람

이 있을까봐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둔치의 꽃을 보았는가를 확인하고는 했을 정도였으니까.

둔치에서 강 건너로 바라다 보이는 공산성의 아침 또한 한층 더 듬직하게 다가온다. 내가 백제의 후손임을 상기토록 해준다고나 할까? 성벽 위로 펼쳐이는 노오란 깃발이 한층 더 자긍심을 갖게 해준다. 공산성에서 바라다보는 금강변의 아름다움과는 또 다른 모습이지만 언제나 포근히 감싸주는 아름다운 정경이다.

정안천의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보니 수국과 연꽃도 아침별을 받으며 피어나고 있다. 그 모습이 어찌 그리 모두들 아름다운지 스쳐 지나치기가 못내 섭섭하다. 작은 교각 위에는 아치로 장미꽃과 유자꽃 덩굴이 올라가 지나는 이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먼 곳에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마련해 놓은 섬세함도 엿볼 수가 있다.

복지관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생태공원이 다. 하지만 신관동쪽에서 흘러오는 하수관에서 군데군데 좋지 않은 냄새가 났다.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생활하수 때문이리라. 이 아름다운 공원을 우리가 잘 지키고 가꾸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시민들의 의식도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닐까?

녹색연합에서 맑은 물 만들기를 위해 몇 년째 열심히 노력봉사하고 있는 EM사업에 우린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가? 우리 시민들이 집에서 설거지할 때 EM을 사용해서 세제

를 반으로 줄일 수만 있어도 우리의 물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금강변에서 낚시를 즐기던 사람들이 버린 비닐을 바라보면 걱정이 된다. 정치인이나 행정가에 대한 불만만을 이야기 하지 말고, 이제는 시민 모두 하나가 되어, 주인의식을 갖고 이 아름다운 고장을 함께 가꾸어 나가야만 하지 않을까?

자전거를 타고 다시 제민천 길로 금학동을 향해 돌아오는 길. 햇살에 얼굴이 제법 따갑다. 봉황동에 이르니 오거리에 장터가 펼쳐져 있다. 부여 방면에서 사는 시골 사람들이 각자 지은 농산물을 가져와 오전만 여는 직거래 장터이다. 가지, 호박, 오이, 깻잎 등 보파리에서 막 내려놓은 싱싱한 야채들을 사고 폐달을 힘차게 밟으며 돌아오는 길. 이 아름다운 공주에 살고 있음이 뿌듯하게 다가온다.



박정관

〈금강여성문학〉 회원이며 공주문협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다. 〈수필시대〉로 등단하였다.



충청남도역사박물관 전경

공주가 아름다운 곳을 공주 사람들만 잘 모른다.

박물관 도시, 공주

공주는 여러 가지로 자랑거리가 많고 다른 도시보다도 색다른 점이 많은 도시이다. 그 자랑거리와 색다른 점 가운데 하나가 역사성이다. 공주는 한국의 어떤 도시보다 역사성이 깊은 도시이다. 그 역사성은 고대 역사에서부터 근대역사까지를 두루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주를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라 불러오기도 했는데 이것 역시 공주의 역사성과 관계가 깊다. 역사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주위환경과 부대끼며 살아온 삶의 흔적을 말한다.

공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역사적 흔적은 선사시대 인간의 삶의 모습에서부터 청동기시대를 거쳐 철기시대로 들어서면서 역사시대의 모습까지 다양하다. 석장리 선사시대 유물이 바로 그것이며 의당면 수촌리 청동기유적이 그것이며 무령왕릉을 비롯한 웅진백제시대의 수없이 많은 유적들이 그것이며 공산성을 비롯한 주변 사찰이라든지 무덤의 흔적이며 성곽의 흔적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유적들을 살피려면 물론 현장에 가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유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이러한 역사적 유물들을 모아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고 가치부여까지를 더하는 곳이다. 이미 죽어있는 유물들을 매만지고 돌보아 숨을 쉬게 하는 작업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유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가해 호흡이 돌아오게 하고 피가 돌게 하는 곳이 박물관인 셈이다.

공주에는 국립공주박물관이 있다. 공주의 여러 박물관 가운데에서 대표성을 지닌 박물관이다. 그리고 특수한 박물관들이 있다. 계룡산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하여 산림박물관, 석장리박물관, 웅진초등교육박물관, 충청남도역사박물관 등이 그것이다. 또한 공주에는 공주교육대학교박물관과 공주대학교박물관 등 대학박물관이 있는가 하면 임립미술관과 같이 개인의 이름을 딴 미술관도 있다. 가히 박물관 도시 공주라 부를 만하다.

아마도 공주 밖에서 사는 분들은 공주에 이렇게 박물관이 많은 줄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공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늘 주변에 있으므로 낮이 익어 그러려니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공주가 정말로 아름다운 곳임을 공주 사람들만 정작 알지 못한다>고 누군가가 말했다면 박물관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박물관이야말로 공주의 또 하나의 특색인 동시에 공주의 문화적 자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앞날에 공주를 정말로 공주답게 가꾸고 다듬는데 박물관의 몫이 크다는 것을 공주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일도 하나의 귀한 교훈이 아닐까 싶다.

::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은 일단 공주시내에서 벗어나 금강 변 곱나루에서 마주 건너다보이는 마을에 위치해 있다. 또 이곳은 주변에 공주문예회관, 공주시립도서관, 공주공설운동장, 연정국악원 등이 있을뿐더러 앞으로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고마복합예술센터와 공예공방촌,



한옥숙박촌의 건립이 완성될 경우, 명실상부 관광문화지역으로 거듭날 지역이다. 또한 부근에는 무령왕릉이 포함된 송산리 고분군이 있어 그야말로 역사 문화지역이라 할 만한 곳이다.

국립박물관의 출발은 현재 충남역사박물관 자리에서부터이다. 1946년 미군정청의 허가를 받아 국립박물관 공주분관으로 개관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일제침략기 공주고적보존회와 공주사적현창회의 노력으로 충남도청 자리(현, 공주사대 부설 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던 선화당(宣化堂) 건물을 옮겨다 짓고 공주박물관을 개관하여 운영한 바 있다. 이때까지는 민간단체로서의 박물관이었다.

국립공주박물관이 오늘의 모습으로 확대된 것은 1971년 7월, 무령왕릉이 발굴되면서부터이다. 여기에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국보급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새로운 박물관 건물이 필요했다. 그래서 1973년 10월 12일 신축건물을 완공하고 새롭게 개관을 하게 되었다. 이어 1975년 국립공주박물관으로 직제 개정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국립공주박물관은

‘무령왕릉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만큼 무령왕릉의 출토품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뿐더러 2004년 5월 14일, 현재의 위치로 박물관이 신축·이전되면서 무령왕릉과 국립공주박물관은 더욱 깊은 관계선상에 놓인다. 바로 공주박물관과 무령왕릉이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가깝기 때문이다.

현재 국립공주박물관은 기획운영과와 학예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장은 박방룡(朴方龍) 박사이다. 국립공주박물관은 새로 지은 박물관답게 현철한 외모와 현대식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우선 전시실로 무령왕릉실(968㎡), 웅진문화실(682㎡), 기획전시실(516㎡)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교육시설로 우리문화체험실(230㎡)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야외정원, 세미나실, 강당 등 부속시설이 있다. 물론 박물관은 유물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국립공주박물관은 현 박방룡 박물관장이 부임한 이래 시민과 함께 하는 박물관을 지향하여 명사 초청특강(연 6회, 토요일 오후), 좋은 영화보기, 작은 공연, 소방관 마술쇼, 작은 공연, 여름밤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치고 있으며 학생들이나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여러 가지 체험학습 프로그램(왕비거울만들기, 보물지도 만들기,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주소는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360번지(충청남도 공주시 정지사길 30).

대표 전화는 041-850-6300이며 홈페이지는 <http://gongju.museum.go.kr>이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

고도(古都)는 통한다

박방룡 | 국립공주박물관장



저는 본래 경주 태생입니다. 신라문화, 특히 신라 도성에 대해서 공부 했고 백제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대구와 경주 두 군데 박물관에서 학예실장을 했고 박물관장으로 공주가 처음입니다. 부임할 때 계룡산을 보고 감동이 컸습니다. 아마도 그게 계룡산 장군봉일 것입니다. 차를 타고 대전 유성을 지나 고개를 넘자 계룡산 봉우리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왜 계룡산일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비로소 왜 계룡산인가 하는 실감이 왔습니다. 웅장한 산의 기상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제 제2의 수도였고 통일신라시대에도 중악(中嶽)을 이루면서 큰 제사를 지내게 되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막 넘어서는데 비단결 같은 금강이 펼쳐지는데 그 풍광이 보는 순간에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처음 와서 보니, 박물관이 시민들과 가까워야 하는데 완전 동떨어진 곳, 산 속에 딱 사찰과 같이 외떨어져 있더군요. 왜 이렇게 만들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공주시가지와 같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떨어진 데에는 무

슨 이유가 있을 텐데,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야 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박물관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어야 합니다. 찾아주지 않는 박물관은 안 됩니다.

박물관에 처음 들어와 느낀 것이 공주시 하고 박물관이 보다 유대를 더 가져야 하겠다, 박물관이 국립기관이긴 하지만 어디까지 공주에 있는 박물관인데 공주시와 박물관이 상생하고 돕고 발전을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시와 우리가 같이 일도 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지나 지형도 익숙해지니 공주가 제가 태어나고 공부한 경주하고 너무도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공주와 경주는 너무 유사하다는 것이지요.

금방 동화되었다 할까요. 객지에 온 게 아니라 여전히 고향 경주에 머무는 것 같은 푸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고도는 통하는구나 하고 절감했었지요.

제가 2007년 12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다음해 2월 초순에 마침 이완구 충남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박물관과 무령왕릉과의 직통 통행로를 만들어줄 것을 건의,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오는 9월이면 완공을 볼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그 길의 이름을 무령왕의 이름을 따 사마로(斯摩路)라 명명할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공주시와 협의하여 개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만 이 길이 완성되면 무령왕릉과 공주박물관이 보다 가깝게 왕래가 될 것입니다. 공주시의 또 하나 명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팟 인터뷰 ● ● ● ● ●

박물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변했다

황규형 | 국립공주박물관 자원봉사자회 회장

불과 2,3년 사이에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우선 가족단위로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현상은 금년에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도가 크게 향상되고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의 열의가 향상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진 교육열의보다는 공중도덕에 대한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아쉽습니다. 조용히 남에게 방해되지 않는 기본적인 태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비하여 외국손님들, 특히 일본사람의 경우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흔히 아이와 엄마가 같이 찾아오는 경우, 엄마는 아이에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라고 말합니다. 그런 때 저

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엄마가 메모를 하기도 하고 집에 가서도 아이하고 복습도 하고 그래야만 아이가 제대로 공부하게 됩니다”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메모하는 어머니가 많이 눈에 띕니다. 박물관은 그저 단순히 옛 유물을 보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배움을 주는 학습의 장이고 느낌을 주려고 배려하는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가끔 일본에서 온 관람객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나라 일본에서 듣지 못하던 것들을 듣고 감동을 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역사교육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일본역사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실토했기도 합니다. 원폭의 도시 히로시마에서 온 교원 출신의 일본인은 태평양 전쟁에 대해

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하고 오끼나와에서 온 젊은 분은 오끼나와 동굴의 자결에 대한 허실에 대해서도 솔직한 고백을 털어놓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일본인들은 백제의 고도, 공주나 부여에 와서 자기네 조상의 편린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네들 문화의 원류가 백제란 것을 느끼고 갑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자원봉사자로서의 나름대로 보람을 느낍니다.

실상 저는 박물관 자원봉사자가 된 이유가 일본인들에게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유물이 일본 문화의 원류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일본인들의 콧대를 좀 꺾어주자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안내를 하면서 주관을 많이 개입시키는 게 아닌가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뿐더러 저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박물관 학습을 통해 그들이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 그 자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박물관 봉사자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교육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규형 선생님은 누구신가?

황규형 선생님은 올해로 85세이신 분으로 45년여 초등교직에 머물면서 충남도내 전문직, 공주시내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하시다가 20년 전, 정년퇴직을 하고 현재는 공주박물관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분이다.

황 선생님은 중등학교 일본어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일본어에 능통하여 주로 박물관에서 일본인 관람객 통역을 맡고 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해설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박물관 자원봉사자 회장을 맡고 계시다.



:: 공주교육대학교 박물관

공주교육대학교박물관은 1974년 부속박물관으로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시관 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제1전시관에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물이 보존 전시되어있고 제2전시실엔 백제시대의 와당과 토기가 주로 전시되어 있다. 현재의 박물관은 2007년도에 옮겨온 시설이다.

특별한 유물로는 공주시 반죽동 대통사지에서 출토된 연화문 와당이 한편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되어있고 백제시대 서까래 기와(백제시대에만 있었던 와당)가 있다.

소장 문화유산의 현황을 보면 총 4,600여점에 이른다.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원은 없고 대학교수가 겸임하기로 되어있는 관장은 서재천 교수가 맡고 있다.

주소는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76번지 공주교육대학교이고 대표전화는 041-850-1630이며 홈페이지는 www.gjue.ac.kr/museum 이다.



공주대학교 박물관

공주대학교박물관은 공주대학교 부설 박물관이다. 1964년 공주사범대학 향토관으로 개설되었고 1991년 법정기구로 인가되어 대학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주대학교박물관은 역사, 문화의 자료를 수집·전시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조사 연구를 실행함으로써 내실 있는 대학교육을 도모하고 일조하겠다는 목적 아래 운영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충남지역의 유적조사를 진행하여 왔다.

그동안 공주대학교박물관이 발굴한 유적 가운데에는 공산성 유적 발굴을 비롯, 백석동 유적, 오석리 유적, 두정동 유적 등 충남의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주대학교박물관에는 백제에 관한 다수의 의미 있는 유적·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발굴유물의 대부분은 국가귀속의 원칙으로 국립공주박물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중요한 유물은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보관중이다. 공주대학교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는 유물 가운데 특별한 것은 천안 용원리 유적 발굴품이다. 중국 제 자기, 용과 봉황을 새긴 화두대도(칼), 토기 종류가 다수 출토되어 학문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 선생 관련 유물실과 고령김씨(高靈金氏) 기증 유물실이 내세우고 싶은 자랑거리다.

주소는 충남 공주시 신관동 산 182번지 공주대학교 내.

대표전화 041-850-8733. 홈페이지는 <http://museum.kongju.ac.kr>이며, 교수가 맡기로 되어 있는 공주대학교박물관의 관장은 김창성 교수이며 이현숙 학예연구사, 안지혜 박물관 요원이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

박물관은 문화놀이터

이현숙 | 공주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저희 대학교박물관에서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매달 1회씩 박물관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문화강좌와 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박물관학교라고 해서 관내 유치원 어린이들이 예약을 하고 와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민속놀이나 문화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교육이라 해서 연기 지역과 천안 쪽 초등학교에 직접 찾아가 아이들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과와 연계해서 우리가 발굴한 충남지역의 자료를 가지고 강좌를 하는 것이지요. 학생들 교과와 수준에 맞는 것으로 하지요. 중등과 고등은 공부가 너무 바빠서 안 되고 초등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간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저희가 대학박물관이잖아요, 사실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와야 하는데 학생들이 박물관을 잘 이용하지 않는 원인이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박물관에 재미있게 가다가 고학년이 되면 숙제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박물관을 여행 가면 줄서다가 그냥 가요. 그러니까 버스 열대씩 가서 박물관에 가서 누가 설명해주는 것도 없이 줄서서 막 구경하다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서 박물관이 점점 필요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초등학교 때 한번 갔다 온 곳, 예를 들면 경주박물관, 월본 건 기억이 안 나고 갔다 온 곳이라고만 기

억하지요. 박물관이 문화놀이터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박물관이 문화놀이터란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수업을 해주면 아, 박물관 재밌다, 박물관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가르쳐주면 결국 그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박물관에 갈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방문교육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연기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시작했는데 소정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김영식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다음에 유구초등학교 교장으로 오셨는데 가끔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요. 도농교류로 다른 학교 아이들이 오면 우리한테 문화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나갑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로 해주냐 하면 가서 저희가 연구한 것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청동기 시대를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청동기 시대만 이야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유구지역의 청동기 시대 유적을 찾아서 거기를 보여줍니다. 니네 동네 신영리 있지? 유구 신영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여주고 거기서는 이렇게 동그란 집들을 짓고 살았단다, 라고 말해주면 아이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 동네에 그런 게 있었느냐고.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이런데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런 마을이 있었는데 한번 우리도 마을을 꾸며보자, 이렇게 말하고 저희가 스티로폼에다가 마을 모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형을 비슷하게 만들고 마을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다 아이들이 집도 짓고 무덤도 만들고 그러면 더 재밌는 것은

무덤에는 토기도 넣었는데 우리도 토기를 만들어요, 라는 말이 애들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강가에 낚시꾼을 넣을 거예요, 그때도 낚시하지 않았어요? 낚시꾼도 만들고, 그래서 제가 야, 아이들이 선생님이다, 우리가 모르는 걸, 우리는 이론으로만 눈으로만 본 것을 아이들은 감정으로 느껴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구초등학교, 예전에는 개별 판만 만들다가 올해 할 때는 판 여섯 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각자 만들면 그걸 합쳤을 때 하나의 큰 마을이 되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대학에 찾아오는 손님이 없으면 왜 안 오느냐고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나가자,가 저희의 주의 이거든요. 나가서 알려주자고 했는데 이렇게 선생님들과 이해가 맞으면 좋은 내용이 확장되더라고요.

:: 산림박물관

산림박물관은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의 금강휴양림 안에 위치해 있다. 충청남도에서 설립하고 관리하는 도립박물관이다. 넓은 부지 안에 산림환경연구소, 유실수원, 야생화원, 수류사육장, 조류사육장, 원앙사육장, 무궁화동산, 숲속의 집, 온실, 산림휴양관 등과 함께 자리해 있다.



산림박물관은 6개의 전시실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1전시실 : 숲속으로 가는 길, 제2전시실 : 아름다움의 출발, 제3전시실 : 숲이 들려주는 이야기, 제4전시실: 숲과 함께 사라지는 생명, 제5전시실: 숲에서 삶의 질을 찾다, 제6전시실 : 숲은 희망이다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있다.

전시실 안에는 여러 가지 희귀한 동물, 곤충, 수석 표본이 전시되어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은행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숲 등 실물 크기의 모형물과 우리나라와 외국의 목재 원목이 종류대로 전시되어 있어 자랑거리로 삼는다. 1년 입장객 23만 명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주영성대학교와 연대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계획 중이다.

주소는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12-2. 대표전화는 041-850-2652-4. 홈페이지는 www.keumkang.go.kr이며, 박물관장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전인환 소장이 겸임하고 있고 윤효상 씨가 박물관 운영담당을 맡고 있다.

:: 석장리박물관

석장리박물관은 석장리에서 발굴된 구석기 유물을 보존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처음 석장리 유적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미국인이다. 1964년 봄, 대학원생인 앨버트 모어 부부가 석장리 금강 가를 답사하던 중 무너진 층에서 펜석기(타제석기)를 찾아낸 것이다. 그 후 이 정보에 따라 연세대학교 손보기 교수 팀이 1964년 5월 다시 석기를 찾아내고 이어서 발굴허가를 거쳐 그해 11월 11일 발굴을 시작하여 1974년까지 11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발굴 결과 석장리에서는 구석기 전기, 중기, 후기뿐만 아니라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까지 광범위한 유물이 나타났다. 이로써 지금까지 한반도에 구석기 시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역사관이 바뀌게 되었으며 5천년 역사를 넘어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땅에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현재 석장리박물관에는 발굴당시의 모든 자료와 사진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게시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토기인 주먹도끼를 비롯하여 다양한 석기가 전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 인류, 인류의 생활상, 문화를 짐작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석장리박물관은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학습장이다. 관리는 공주시에서 맡고 있으므로 공주시립 박물관인 셈이다. 관장은 김재철 씨. 주소는 충남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98번지. 대표전화는 041-840-2491. 홈페이지는 www.sjnmuseum.go.kr. 이다.



석장리박물관 전경



구석기시대 움집

기억에 남는 만남

조 은 | 공주시석장리박물관 문화해설사, 수필가

공주지역의 문화유적을 돌며 문화해설사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관광객 가운데는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단위로 올 때는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는 자동으로 듣는 단말기가 있어요. 근데 좀 더 알고 싶으면 해설사에게 부탁을 하지요. 각계각층이 오니까 제가 인상 깊었던 사람을 말해드려야 하겠군요. 해설사는 유치원 꼬마부터 노인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비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서울에서 가족단위로 온 관광객들이 해설을 요청해서 해설을 해주게 되었지요. 그 가운데 아주 웃을 남루하게 입은 어느 아주머니가 아이들 셋과 함께 듣고 있더라구요. 근데 아이들의 눈빛이 한 아이만 살아있고 두 아이는 약간 주눅이 들어 있어요. 아이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다른 아이들은 열심히 앞에 와서 듣고 하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큰 아이가 나름대로 질문에 대답도 잘 하고 해서 인상이 깊었어요. 마지막 해설이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칭찬을 해주었어요. 정말 똑똑히 잘 듣고 그런데, 다음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해설을 들어라, 그런데 오늘처럼 멀리서 듣지 말고 가까이서 들으라고 하고 제가 그 아이를 안아준 적이 있어요. 근데 애가 몸을 부르르 떨더라구요. 감격을 해서 몸을 부르르 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음료수를 하나 빼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훗날에 그 아이는, 그날의 그 칭찬이 다른 평범한 집 아이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아이로서는 인생을 바꾸는 사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 눈빛을 보면서 제가 느꼈거든요.

그 다음에 고등검찰에 계신 검사님이 한분 관광객으로 오셨어요. 제가 또 해설을 맡았는데 그분이 대개 권위 의식이란 것은 전혀 없이 정말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저하고 메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아이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쓴 글을 보여드렸지요. 검사님도 그걸 읽고서 자기도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작품을 그 뒤에 문학잡지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논산의 연무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권선옥 시인이 읽고서 좋다고 그러시면서 원고를 보내달라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에게 읽어주신다 하면서요. 그 날의 그 가난한 집 소년과 검사님, 그 두 사람이 해설사 일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입니다.



:: 웅진초등교육박물관



웅진초등교육박물관은 공주시내권에서 서쪽 방향으로 연미산 너머 우성면 청산초등학교 터에 있다. 2001년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 박물관을 개관했다.

조선시대, 개화기, 일제강점기, 교수요목기, 교육과정기(1차~7차)까지의 각종교과서는 물론

각종 교육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모아 전시하고 있다. 웅진초등교육박물관은 특수목적박물관인 셈인데 이재우, 이진우 형제가 설립한 사설박물관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에겐 학습의 공간으로 성인들에겐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관광의 장소로 활용할만한 장소이다.

옛날의 초등학교 건물과 운동장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학교 전체를 전시실과 체험학습장으로 꾸며서 활용하고 있다. 전시실은 상설 전시실, 복도전시실, 특별전시실, 어린이 잡지 전시실 등으로 나뉘어 있다. 가족 주말프로그램으로 '가루야 놀자!' (봄), '천연염색과 함께 하는 깃발체험' (여름), '인형아 놀자' (가을)와 같은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 단위 내지는 집단별로 인터넷으로 예약, 접수하고 있다.

주소는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446-5. 대표전화 041-853-4569. 홈페이지는 www.wjem.or.kr이다.

:: 임림미술관

임림미술관은 충남대학교 미술과 교수인 서양화가 임림(林立) 화백의 개인적 열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설미술관으로 공주시내에서 논산 방향으로 가는 길목 계룡산이 마주보이는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공주 지역의 첫 개인 미술관으로 1997년 10월 1일 문을 열었다. 설립자 자신의 작품과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에서 각종 초대전과 기획전을 열며, 어린이와 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미술실기대회 및 이론강좌, 문화강좌 등을 실시한다.

건물은 미술관과 별관으로 나뉘어 있다. 미술관 1층에는 대전시실·소전시실·수장고·당직실, 2층에는 자료실, 3층에는 시청각실·연구실·사무실이 있고, 별관으로 세미나실·휴게실·실기실·회의실을 갖춘 연수원이 있으며 최근 특별전시관 A동과 B동을 새로이



마련했으며 구역 안에 호수와 산책로를 낀 야외조각공원도 있다.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자연사랑을 위해 미술관에서는 창작아카데미, 자연체험 등과 같은 체험 학습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5월에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작품들을 모아 특별전시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가을이면(10월 10일~11월 1일) 국제미술제를 개최하는데 올해(2009년)로 6회째를 맞는다.

주소는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791-1. 대표전화는 041-856-7749. 홈페이지는 www.limlipmuseum.org이다.

스팟 인터뷰 ● ● ● ● ●

미술관에서 행복하다

김영자 | 임립미술관 사무장

현재 저희 특별전시관에는 한 달에 한 번 씩 작품이 교체되는데 충청도 지역 좋은 작가들의 작품을 초대하여 전시하고 있어요. 5월달 같은 때는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작품이나 어린이들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현재는 교도소의 재소자들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요. 공주, 청주, 천안의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 작품인데 저희 쪽에서 강사님들이 하루 체험교육을 시킨 다음 그 다음날 작품을 만들게 해요. 그런데 그들의 작품을 보면 두고 온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표 현되어 있어 보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8월에는 방학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아이들이 숙제를 하려고 아주 많이 찾아옵니다. 지나가는 코스가 있으니까 8월에는 한 번 씩은 왔다 가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아이들이 숙제하러 오면 재소자 작품을 안내 해주는데 많은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있으면서 행복한 것은, 저희는 행복과 자유가 그냥 아무 때고 손만 뻗 치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미술관에 숙제하러 오잖아요. 니네들이 자유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B동 가서 작품을 보고 감상을 해봐라, 그 작품이 작가들이 만든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그림이 별 볼 일 없지만 작품 하나마다 사연이 있는 작품들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다 보니 각지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근데 공주사람들만 공주가 좋다는 걸 별로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전라도 전주, 군산, 익산, 그리고 경상도 포항, 울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공주가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특히 논산 사람들은 공주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산에는 이런 문화시설이 별로 없대요. 공주 사람들은 이렇게 문화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익산, 군산 사람들은 공주가 거리가 가깝고 볼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논산 사람들이 다 이리로 와요. 공주는 복 받은 도시래요. 태풍이 와도 비켜가잖아요. 저는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지요. 저는 공주에 사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공주시민으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손님들한테 여기 오셔가지고 입장료를 3천원 받는데 입장료 3천원 내고 들어와 3천원어치 행복을 마음에 담지 못 했으면 입장료를 다시 내드린다고 합니다. 구경하고 나오신 분들에게 마을에 3천원어치의 행복을 담으셨습니까, 그렇게 여쭙곤 합니다.



:: 충청남도역사박물관

충청남도역사박물관은 2006년 9월에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는 비교적 역사가 길지 않은 박물관이다.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물들을 모아 전시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공주지역의 여타 박물관과 차별성을 갖는다. 국립공주박물관이 국가수준의 유물, 백제무령왕릉 출토품을 주로 다루고 석장리박물관이 선사시대의 석기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이라면 충청남도역사박물관은 고려, 조선, 근현대의 충청남도 지역의 유물을 보존 관리한다.

보유하고 있는 유물은 4만여 점. 충청남도역사박물관이 짧은 기간 이렇게 많은 유물을 보유하게 된 이유는 2005년 충청남도의 사료실에서 수집·보관하고 있던 유물을 이관 받음으로서이다. 현대 다수의 유물이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고 박물관 건물 2층 260평 전시실에는 600여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박물관 측 인사는 명재(明齋) 윤중(尹拯) 가(家) 국가지정유물 60여점을 영구기탁 받아 소장하는 것과 일본인 아메미야 히로스케 씨가 기증한 공주에 관련된 유물을 최근의 수확으로 꼽고 있다.

충청남도역사박물관 대지와 건물에는 본래 국립공주박물관이 들어 있었다. 여기에 60년대 선화당 건물의 공주박물관이 있었고 70년대 신축된 국립공주박물관이 있었다. 2004년 국립공주박물관이 웅진동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사 간 뒤에 현재의 충청남도역사박물관이 새로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충청남도역사박물관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벽지학교이나 장애인 단체를 찾아가 전통문화체험을 시킴), 학예 청소년 박물관교실, 국립민속박물관과 연계한 협력망 사업(다종이 공예, 한지공예), 하계 어린이 한문교실, 전통차 예절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변평섭) 안에 소속된 기관이며 관장은 오석민 씨가 맡고 있는데 박물관 내에 쉼터(찻집)를 운영하고 있고 동주시내 문화 동아리들의 활동 장소로 시설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충청남도역사박물관의 건물과 주변경관은 공주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 공주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벚꽃나무 동산과 우리나라 최고의 수령을 자랑하는 세 그루의 금송이 있을 뿐더러, 70여년 역사의 공주중동천주교회 건물과 충청지방 신교육의 메카 영명학원(영명중·고등학교)이 주변에 있기 때문이다. 전하는 바로는 박물관 주변의 벚꽃나무들과 금송은 100년 정도의 나이를 헤아린다 하니 가히 근대 공주지역의 문화와 자취를 대변하는 지역이라 할 만하다.

주소는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284-1. 대표전화는 041-856-8608.

홈페이지는 www.cihc.or.kr 이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

한 · 일 간의 조용한 감동

민정희 | 충청남도역사박물관 운영팀장



작년에 일본 분 아메미아 히로스케 선생의 유물을 기증을 받고 그게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전주에 사시는 김병수라는 분이 전화를 또 하셨더라고요.

요. 전화를 해서 일본사람이 선대에 가져간 유물을 충남에 다시 돌려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주소를 알아봐 달라 그러셨구요,

실제 그분이 편지도 쓰셔가지고 유물을 돌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편지를 하시고

특별전 할 때 그분이 부인하고, 86세 되시는 노구를 이끌고 직접 오셔가지고 일본에다가 마이니찌신문하고 조광(朝光) 잡지에 감사한 내용을 기고(寄稿)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조용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두 분이 서신을 왕래하시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통화를 안 하셨는데 그 부인인가가 편지를 하셔가지고 올해 3월에 병으로 작고 하셨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슬픔에 잠겨 전화를 다 하셨더라고요. 혹시 알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들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아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 계룡산자연사박물관

계룡산자연사박물관은 동학사 들어가는 입구, 계룡산 장군봉 아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한적한 장소에 깊숙이 자리해 있다. 국내 최대 최다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는 교육과 체험의 장소라고 자랑한다. 박물관 1층은 주로 공룡의 세계, 2층은 생명의 땅 지구, 3층은 자연과 인간이란 대 주제 아래 꾸며져 있다. 부대시설로는 뮤지엄샵, 강당, 디노카페, 카페테리아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박물관 안내서에 의하면 <보석, 동물의 세계, 바다의 세계, 식물의 세계, 곤충의 세계, 자연과 인간관, 미래전시관 등 우주의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동적인 전시는 유치원과 청소년들에게 호기심과 탐구심을 불러 일으켜 자연 과학자의 꿈을 키워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장은 조한희 씨. 조 관장은 충청남도박물관협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2004년 9월 21일 개관했으며 대표전화는 042-824-4055. 주소는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511-1. 홈페이지는 www.krnamu.or.kr. 이다.



정리 : 김민영(공주문화원)

공주의 선비들 공북루에서 가을을 읊다



백 원 철
- 공주대학교 교수
- 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조선 헌종 14년(1848) 가을에 공주의 선비들은, 「공북루의 가을(北樓淸秋)」이라는 제목으로 시 짓기를 겨루는 모임을 갖는다. 이름하여 백일장(白日場)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대체로 과거 형식을 본떠 시관(試官)이 자리한 가운데 시제(詩題)를 내걸고 즉석에서 시문(詩文)을 짓도록 하여 그 성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장원(狀元)을 주기도 한다.

이날의 모임은 이 해에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한 조득림(趙得林, 1800~?) 감사가 주관한 시회(詩會)로서, 운자(韻字)는 「頭, 州, 樓, 流, 遊」로 정하였다. 먼저 관찰사가 시를 짓고, 유생들이 따라 짓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한 편의 시축(詩軸)을 이루었는데, 이 시축은 대체로 그렇듯이 초서로 쓰여져 있으며, 현재 충청남도 역사문화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관찰사의 원시(原詩)는 다음과 같다.

多士青衿半百頭
愧吾屢據按名州
先生弟子今湖學
人傑地靈又岳樓
白日較藝楓葉戰
淸秋開宴雁聲流
佇看歌鼓登鄉貢
得意歸來聞喜遊

선비들 많이 모였는데 반은 머리가 희구나
부끄럽게도 부족한 내가 이름난 곳 맡았도다
선생이며 제자들 호서의 학자들이요
사람과 지역에 또 누대조차 훌륭하다오
한낮에 재주 겨루니 나뭇잎도 다투는 듯하고
한가을 잔치에 기러기 소리 멀리 들리네
곧 볼 터이니, 풍악 속에 향시에 합격하여
당당히 돌아와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按使 趙得林〉

이 때 참여한 공주의 선비는 모두 31인이었는데, 반은 백두(白頭)라고 하였으니 나이 많은 선비도 다수 참석한 것임을 알겠다. 또 기명(記名)에 모두 성명(姓名)만을 밝힌 것으로 보면, 소과(小科)에도 미쳐 급제치 못한 포의(布衣)의 유생(儒生)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기에 감사가 시의 결연(結聯)에서 '이제 곧 향시에 급제하여 풍악을 울리는 잔치를 열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읊었으니, 곧 이 유생들을 격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 감사의 시에 바로 이어져 기록된 것은 유생 권엽(權鰲)이 지은 다음 시이다.



愧我巽堂坐白頭
彬彬文物在熊州
鹽醢本分難謀酒
絃誦餘閒更上樓
棠笑興謠皆惠政
錦江觀釣亦風流
待他筇屐歸山日
說與群蒙記盛遊

부끄럽게도 서생으로 머리 희었는데
빛나노니 문물은 웅주에 성하도다
조촐한 안주에 술잔 더 들기 어려운데
노랫가락 한가로운데 다시 누에 오르네
아가위나무 아래서 어진 정치 칭송하며
금강 가 낚시 구경도 멋진 풍류로세
다른 날 지팡이 짚고 산마늘로 돌아가면
학동들에게 말하며 성대한 놀이 기억하리라

〈權譏〉

지은이는, 나이 들어 이러한 자리에 참여함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문예를 숭상하여 선비들을 모아 백일장을 여는 관찰사의 처사를 어진 정치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생 임춘흙(林春欽)의 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禿梢亂葉迎江頭
白髮餘生又此州
山壓平沙微掛堞
烟舍秋氣半藏樓
文章考課三句去
刺史風聲百歲流
官妓青羅裳如幅
一毫難書寫清遊

우거진 나뭇가지 강머리를 들렀는데
머리 센 유생들이 이 고을에 모였구나
모래밭 다가선 산 성벽이 들렀는데
가을 냉기 서린 안개 북루를 가리누나
문장을 겨루면서 한 철을 지나노니
감사의 명성은 오래도록 전하리라
관기의 비단치마 주름폭 아리따운데
붓을 들어 이 정경을 서둘러 쓰노라

〈林春欽〉

위의 시는 시문을 겨루는 장소인 공북루의 가을 풍광에 이어, 역시 문한(文翰)을 중시하는 감사의 덕을 칭송하고 있다.

鳳凰山尾錦江頭
玉節布衣動一州
留意詩書登學舍
暢懷楓蘭上今樓
遠霞滴檻襟豪爽
火酒盈罍化溢流
白髮青衿齊會地
願公來世復今遊

봉황산 끝 금강의 머리말에
기품 있는 유생들 큰 고을에서 이르렀네
시와 글에 정진하여 학사에 다녔고
단풍 난초 읊고자 이곳 북루에 올랐네
먼 곳의 노을 난간에 비쳐 상쾌하고
내린 술잔에 채우니 취한 기운 넘치네
센머리 선비들 나란히 앉은 이 자리
원컨대 오늘 같은 좋은 모임 다시 있었으면

〈李一源〉

위의 시 역시 백발의 유생들이 모두 모였다고 하였는바, 이를 보면 아마도 조득림이 관찰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 이곳 공주목(公州牧)의 나이든 유생들을 모아 위로차 베푼 시회(詩會)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踏盡秋聲坐水頭
烟露從古最南州
峩壁鳥度環蒼壁
鏡樓魚游倒畫樓
白首放歌猶義氣
青娥勸酒亦風流
錦湖物色常如舊
奇語沙鷗續此遊

걸음 멈추고 가을바람 속에 물가에 앉으니
안개 이슬 예로부터 이곳이 이름났지
높다란 벽 새들 나는 곳 푸른 성벽 두르고
맑은 누대 물고기 노는 곳 물속에 비친 누대라네
머리 센 몸으로 크게 노래하니 의기는 남았고
어린 기생 술 권하니 멋진 풍류로다
금강 물빛 풍경은 예대로 변함없으니
물가 갈매기야, 즐거운 놀이 이어가자꾸나

〈延學羽〉

산성과 북루를 포함한 금강 물가의 자연 풍광과 사회의 즐거움을 읊은 것임을 알겠다.

手折黃花插滿頭
一年秋色在南州
中軍初罷城西角
都督先登水北樓

노란 국화 꺾어서 머리에 가득 꽂으니
한 해의 가을 빛이 남쪽 고을에 머무는구나
중군은 처음으로 성 서편 모퉁이에 멈추고
도독은 먼저 강북 누대에 오르누나



從此湖山生物熊
無難詩酒剩風流
匹驪倦踏鄉園路
虛負清區最盛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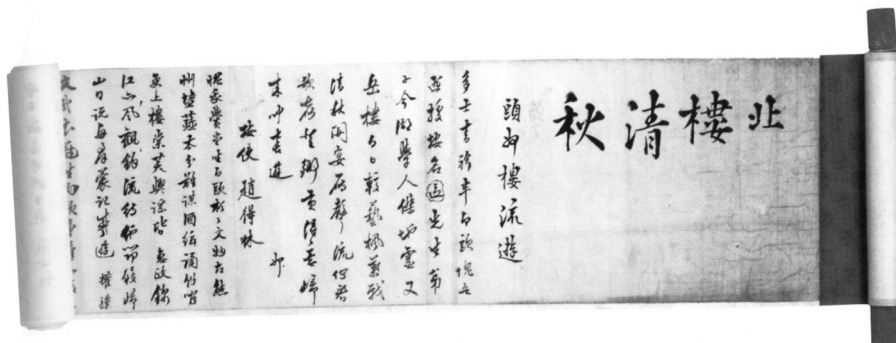
이때는 산과 강물 경지도 훌륭하니
시 짓고 술마시기 좋아 풍류가 넘쳐나네
한 마리 나귀 타고 느릿느릿 돌아가노니
맑은 고장 성한 잔치 헛되이 등지누나

〈蔡東軾〉

본 시두루마리(시축)는 관찰사의 원시 외에 위의 유생들을 포함 모두 31인의 유생들이 읊은 시가 기록되어 있는 바, 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공북루 주변의 자연 경관과 관찰사의 문치(文治)에 대하여 칭송한 것들로서 대동소이하다.

한편 관찰사 조득림은 본관은 양주(楊洲), 자(字)는 덕경(德卿)이며, 1831년(순조 31)에 문과에 급제 후, 부교리·영변부사·평안도 암행어사를 지내고, 1848년(현종 14)에 충청도 관찰로 부임하였다. 이임 후에는 홍문관과 예문관의 제학을 지내고 한성부 판윤과 공조·형조·이조판서 등 요직을 역임하면서 실록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본 시축은 충남역사박물관에 소장, 전시되고 있는 바, 자료 활용에 편의를 제공하여 준 박물관 측에 감사한다.)



1846년, 관찰사 조득림과 공주 유생들이 지은 시를 모은 시축(충남역사박물관 소장)

샘(우물) 관련 땅이름(1)

장길수

- 봉황중학교 교장
- 공주향토문화연구회 회원
- 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위원



1. 샘과 우물

비가 내리면 대부분의 빗물은 지표의 내와 강을 통하여 바다나 호수로 흘러들어 고인다. 나머지 빗물은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흐른다.

지하수 중 일부는 땅 위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샘이라 한다. 우물은 지하수를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적으로 파서 만든 구덩이이다. 보통 두레박을 이용하여 물을 퍼 올린다.

샘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주로 계곡이나 산기슭에 발달해 있다. 반면, 우물은 인공적으로 만든 것으로 평지에 많이 분포한다.

샘과 우물은 음료수를 비롯한 각종 생활용수의 공급처로서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따라서 샘이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되고, 마을이 커지면 우물을 파기도 하였다. 이처럼 작은 마을은 물론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아 왔다.

뿐만 아니라 샘터나 공동 우물가는 생활용

수의 공급처이기도 하지만 마을 아낙네들의 소통과 정보 교환의 장소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우물터에서 두레박을 떠올리며 마을 소식을 듣고,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시집살이의 애환을 나누던 인생 상담소이기도 했다.



우물가(김홍도 풍속화)



나주의 완사천

또한 샘터는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경주의 나정(蘿井)과 알영정(閼英井)은 박혁거세 신화와 관련이 있으며, 나주의 완사천(浣紗泉)은 고려 태조 왕건(王建)과 버들낭자인 장화왕후(莊和王后)의 로맨스가 어려 있는 샘이다. 마산의 몽고정(夢古井)은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가 일본 정벌을 위한 진(鎭)을 설치하고, 그 병사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우물이다.

이와 같이 서민들의 애환과 역사적 전설이 서렸던 샘터나 우물도 이제는 많이 사라졌다.

2. 샘(우물)과 땅이름

세월이 흐르며 많은 샘이 없어졌다. 그 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 곳이 땅이름으로 남아 옛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는 지역도 많다.

샘이름이나 우물이름이 땅이름으로 사용되어 마을이름과 도시이름으로 쓰인 예도 흔히 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만 살펴본다.

▶ 정읍(井邑) : 전북에 있는 시(市)이다. 정읍이란 도시 이름은 백제의 노래로서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정읍사(井邑詞)에서 유래한다. 정읍사는 행상을 나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정읍이란 이름의 뿌리는 정자형 우물이다. 이 우물은 지금도 정읍시 신정동 정해마을에 있다.

▶ 예천(醴泉) : 경북에 있는 군 이름이며, 읍 이름이기도 하다. 예천(醴泉)은 중국에서 태평할 때에 단물이 솟는다고 하는 샘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봉황이 예천의 물만 마신다는 전설도 있다.

▶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땅이름에는 샘·우물과 관련 있는 곳이 많다. 동(洞) 이름, 면(面)이름, 이(里)이름, 자연 동네 이름으로 대부분의 지역에 분포한다. 대표적인 예로 합정동(合井洞, 서울), 천천동(泉川洞, 수원), 주천면(酒泉面, 영월군), 온정면(溫井面, 울진), 두정리(斗井里, 진도읍), 천동리(泉洞里, 단양읍) 등을 들 수 있다.

3. 공주의 샘(우물)과 마을이름

공주에도 많은 샘과 우물이 분포해 있었으며, 샘(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기도 했다. 따라서 공주에도 샘과 관련된 지명이 여기저기 보인다.

면 이름으로 우정면(牛井面)이 있었으며, 리 이름으로 온천리(溫泉里), 목천리(木泉里),

화정리(花井里), 영정리(永井里) 등이 있다.

공주 구시가지 지역은 풍수상 행주형(行舟形)이기 때문에 우물은 파지 못해서 큰 우물은 없는 것 같다. 우물을 파는 것은 배 밑창을 파는 것과 같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물을 길어다 먹는 경우도 있었다.

1) 소우물(牛井)과 소물리

소우물은 우성면 목천리에 있다. 이 우물은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인조임금이 이괄의 난으로 공주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의 일이다. 도중에 타고 가던 소가 기갈이 심하여 이곳에서 소에게 물을 먹이고 갔다. 그 후 이 우물을 소우물이라 불러 왔다.

면 이름도 우정면이라고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우정면(牛井面)과 성두면(城頭面)이 합하여 우성면(牛城面)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이름 있는 우물이지만 지금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논 한가운데에 그 터만 보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나무를 심어 우물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역사적



소우물터(향나무 있는 곳, 우성면)

사실에 근거해서 정비하여 체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2) 큰 샘과 샘거리

큰샘거리는 봉황동에 있는 유명한 샘이 있는 골목 거리이다. 공주의 랜드마크로 공주에서 오랜 생활을 한 사람은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봉황초등학교 서편, 봉황산 시어골로 올라가는 골목에 자리하고 있다. 봉황동 일원에선 거의 모든 집에서 이 샘물을 이용할 정도로 물이 풍부한 큰 샘이었다. 샘을 중심으로 5거리가 형성되어 있을



큰샘거리(봉황동)



지금도 사용되는 바가지샘(봉황동)

정도로 변잡한 골목길이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그 터를 보존하고 있다. 동네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20여 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았다 한다.

큰 샘터에서 효자길을 따라 오르면 하고개를 넘기 전에 바가지샘이 있다. 이 샘은 지금도 허드레 물로 이용되고 있다.

3) 큰 우물터

공주고등학교 기숙사 남쪽 담장길을 따라 가면 개울이란 마을이 나온다. 개울의 중앙

으로 충혼탑에 이르는 길이 있으며, 이 길을 따라 조금 오르면 동쪽으로 갈라지는 길이 나온다. 이 길이 큰 우물길이다. 큰 우물길을 따라 오르면 시나무골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 부근이 큰 우물터이다.

지금은 우물터가 매워지고 곁에 있었던 둥구나무도 베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고살길을 따라 올라가면 마을이 끝나는 부분에 또 하나의 우물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우물을 보존하고 있다.



큰 우물터(중학동)



큰 우물 위의 새로운 우물(중학동)

공주영명학당

영산공원 뒤로 빨간 3층 건물이 두 채가 있었다. 한 채는 영명학교 강당이고 한 채는 선교사의 집이다. 일락산 건너편 마주보이는 일출산에 위치하고 있는 곳, 당시 3층은 공주 최초의 빌딩으로 멋있었을 법하다. 일출산이란 이름이 괜히 붙여진 게 아닌 듯하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공주의 신문화의 교육을 세우란 뜻이었을 게다. 이 건물은 영명학교를 상징하던 건물이다. 노후로 인해 철거할 당시 머릿돌에 묻혀있던 함에는 개교 1회부터 11회까지의 졸업생 명단과 학교 족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설립 허가증, 당시 사용하던 성경과 찬송가, 교직원 명단 등 소중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역사는 그렇게 남겨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유야 어쨌든 이 강당은 남겨졌어야 옳았다. 갤러리로 남겨 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사한 갤러리 하나 잃어버린 아쉬움이 있다.



김 혜 식
_ 새이학가든 대표
_ 사진작가



충남 공주시 중동 318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영명 학당의 3층 강당건물



미국 기독교감리회 소속의 프랭크 윌리엄 (Frank E. C. Williams). 우리나라 이름으로 우리암. 동상에 새겨진 한자식 우리 이름이 참 친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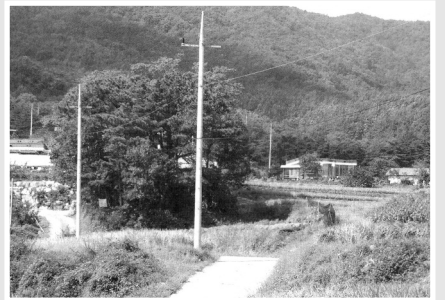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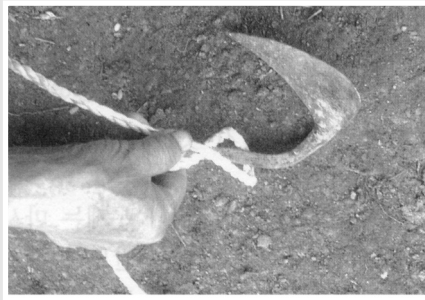
같은 건물을 옆에서 본 모습

이곳을 보여주면서 공주의 여성 신교육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 싶다.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머물다 간 곳. 유관순이 이곳에 잠깐 다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신여성 임영신이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곳. 사프 선교사의 부인 하몬드 여사가 남편을 도와 신여성의 교육을 맡아 시작했다고 한다. 초기 학교 전신의 교명은 명선여학당(장소는 이곳이 아님). 이후엔 영명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윌리엄이 교장으로 초대되면서 이곳이 영명남자고등학교로 바뀌었다. 그렇게 공주는 일찍이 신여성을 위한 교육의 시작이 활발했건만 유관순 이후 그다지 영명한 여성이 없음이 아쉽다. 모쪼록 이름처럼 많은 영명한 개인 여성들이 많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우리가 사는 곳이 공주니까.



영명학교를 이야기할 때 함께 묶어야 좋을 것 같다. 취재차 갔을 때 선교사의 집에서 만난 집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영명학교 창설자 윌리엄은 결혼 기념으로 아내에게 이 건물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같은 시기에 지어진 영명 강당은 사라졌다. 제일감리교회 소속 건물이지만 근대문화유산으로 이곳은 지켜져야 좋을 듯하다. 빼거덕거리는 계단과 비 들이치는 문틀. 곧 손을 보지 않으면 많이 손상을 입을 것만 같아 아쉬움을 남긴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있는 기도처. 높은 곳, 허름한 곳, 소박한 아내의 기도가 잘 어울리는 곳이다.

우성면 한천리(3)



- 지리적 여건
- 지명과 유래-홍길동의 마을
- 홍길동의 마을-홍길동 산성과 홍길동의 골
- 한천리의 사찰과 암자
- 무성산의 산제당과 열두동네 산신제
- 중영천의 서당
- 마을의 중요 성씨
- 영천두레

신령스러운
샘이 솟는 마을
신령스러운
샘이 솟는 마을

중영천의 서당

중영천에는 서당이 있었다. 조선 말기부터 일제 강점기 중엽까지는 노 선생(虜先生)이라는 분이 당신의 사랑채에서 서당을 운영하였다. 불행히도 노 선생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아는 사람이 없으나 서당에는 7-8명의 학동들이 천자문(千字文) 계몽편(啓蒙篇) 등 초학을 공부를 하였고, 공부를 한 보답으로 훈장에게 내는 학채(學債)는 봄에 보리 한 가마 가을에 쌀 한 가마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사정에 따라 경감하였다.

노 선생이 사망하고 나서 한천리를 한동안 서당이 없었다. 그러다가 다시 서당을 연 분이 한옹 선생이다. 현재 사곡면에서 살고 있는 한백 씨의 선친인 한옹 선생은 일제 강점기에 '나라가 어지러우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서당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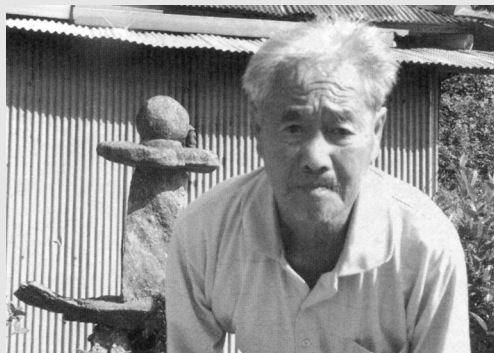
한옹 선생은 가정이 어려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동(學童)을 모았으며 반상은 따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학채도 받지 않았다. 당시의 서당에서 공부한 사람은 임재규, 장운옥, 임재문, 임재호 등인데 가정이 넉넉한 집에서 한해에 쌀 한 가마 정도를 냈지만 대부분의 학동들은 학채를 내지 못하고 공부를 했다.

한천리의 마지막 서당에서 공부한 사람 중 임재규(73세) 씨는 아직도 한천리를 지키며 살아간다. 농촌에서는 드물게 말을 두 필이나 키우고 농사를 지으며 한우를 기르는 축산인이다. 마당에는 소박한 돌탑을 괴고 아주 좁은 공간에 작은 분수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데 마을의 중요한 역사와 자료를 잘 소장하고 있어서 마을 정신을 지켜온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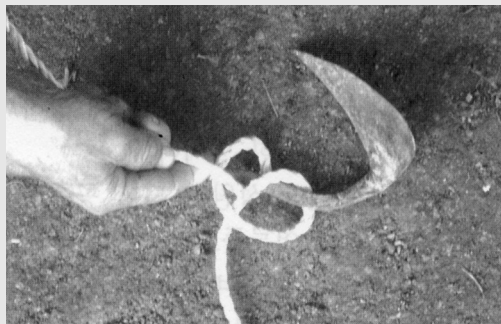
임재규 씨의 정원



한천리 서당의 마지막 학동 임재규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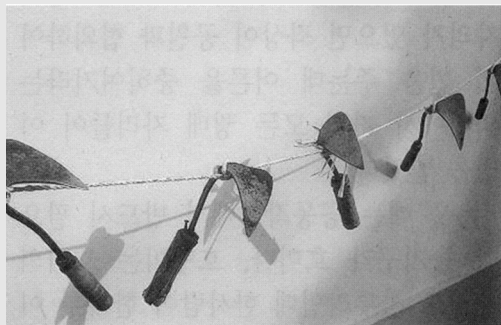
매듭 없이 호미를 묶는 방법



매듭 없이 호미를 묶는 방법



영천사지의 풍탁



영천사 주지가 소장한 고 불서들

마을의 중요 성씨

한천리의 중요 성씨를 조사하면서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 있었다. 마을을 연 사람들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마을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사람들도 그 수가 적었으며 살아온 기간도 생각보다 짧은 편이었다.

현재까지 마을에 살고 있는 주요 성씨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는 밀양 박씨다. 밀양 박씨는 청양 정산에서 살다가 이 마을로 이주하여 6대를 이어가고 있는데 신암의 수원 백씨들이 더 오래 전에 이 마을에 살고 있었다 하나 모두 떠나고 지금은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밀양 박씨 다음으로는 부안 임씨가 5대를

이어가고 있고 경주 이씨, 인동 장씨가 다음을 잇는다.

산수가 수려하여 무릉동천으로 일컫던 마을에 7대 이상 오래 산 성씨가 없는 점이 특이하여 기록한다.

영천두레

영천두레는 단일 두레다. 두레의 특성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참으로 흥을 중요시 한다는 점이며 각종의 두레 벌(罰)이 최근까지 맥을 이어온 마을이라는 점이다.

마을의 자연환경이 논이 적고 밭이 많은 마을들에서 보이는 두레의 특성은 충청도 사람들의 표현대로 ‘혈령한 편’이다. 일이

많지 않으니 규율이 엄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데 마을 전체의 논의 면적이 500마지기 정도의 작은 규모였는데도 유독 두레 벌에 관해 많은 것들이 채록된 마을이다.

이중에서도 호맹이 빨랫줄이라는 두레 벌은 다른 마을에서는 보이지 않는 한천리만의 두레 벌이다.

영천 두레의 두레 벌(罰)

호맹이 빨랫줄

두레 벌은 마을의 노동 공동체인 두레가 두레 구성원 중 과오를 범한 사람에게 내리는 집단 벌을 의미한다. 두레 벌은 두레 공동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에 대한 벌과 불효, 난봉질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잘못에 대한 벌로 나뉜다. 영천 두레의 두레 벌은 대부분 전자에 대한 벌이며, 호맹이 빨랫줄 역시 두레의 막내에 해당하는 쾡배자리에 대한 벌이다.

당연히도 두레 구성원이 되어 공동 작업에 참여하면 어른들보다 일찍 나와 공동 작업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을 앞세우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어른들보다 늦게 나오는 쾡배자리가 있으면 좌상이 공원과 협의하여 이 벌을 주는데 어른을 중히 여기라는 의미에서 거의 모든 쾡배자리들이 이 벌을 받았다.

논을 매는 공동 작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농기구가 호미다. 호맹이는 호미의 충청도 사투리인데 한 사람이 한 자루 이상의 호미

를 들고 일하는 일판이다 보니 50-60여 자루의 호미가 있었다.

호맹이 빨랫줄은 이 모든 호미를 한 번에 모두 옮기게 하는 벌이다. 장대 두 개에 빨랫줄 같은 줄을 묶어 놓은 기구를 준비해 놓고는 모든 호미를 당해연도 모든 쾡배자리들을 시켜 이동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논을 매고 나올 때 호미를 두레 구성원의 나이순으로 늘어놓고 호미를 다음 일판으로 이동시켜 주인을 찾아주도록 한다.

문제는 호미의 모양이 서로 비슷하여 주인을 찾아주기 힘들다는 것이며 처음에는 나이순으로 나란히 놓인 호미를 장대 줄에 걸고 장대를 들면 줄의 중심으로 호미가 몰려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순서대로 늘어놓는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동한 장소에서 나이순에 맞추어 호미를 나열하지 못하여 주인이 찾지 못하면 벌주(罰酒)를 마셔야 한다.

벌주는 막걸리다. 그러나 문제는 마시는 양이 많다는데 있다. 반드시 쾡과리에 가득 차도록 막걸리를 따라 세 잔을 마셔야 한다. 이 마을에서 쾡배에 드는 청년의 나이는 대부분 16-7세의 청소년들이다. 이때까지는 마음 놓고 술을 마셔본 적도 없는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내린 벌로 쾡과리 막걸리 석 잔을 마시고 나면 힘겨워 일을 하기 힘든 지경이 되어버리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술에 만취했는데도 어른들과 한 일판에서 일을 해야 했다. 마시기 싫다고 안 마실 수도 없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어른들 앞에

서 술을 배워 술에 취해 실수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벌주였다는 점이다.

호미를 빨랫줄에 너는(매다는) 방법에 또 하나의 지혜를 요구한다. 빨랫줄에 호미를 매달 수 있다는 점이다. 매듭을 지어 묶는 것은 금했지만 매듭을 짓지 않고 묶는 것을 용인했다. 결국 농사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묶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였다. 그리고 농사일도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청소년 대상의 벌이 호맹이 빨랫줄인 것이다.

깡매기 벌주(罰酒)-깡매기 물킨다

이 마을의 두레 벌 중 가장 약한 벌이다. 공동 작업에 지나치게 늦게 나오는 사람이나 한두 번 실수로 빠진 사람에게는 팽과리에 가득 차도록 막걸리를 벌주로 먹인다. 과오에 따라 한 잔, 두 잔, 석 잔까지이며 술을 아예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행하지 않고 벌주의 양은 좌상이 정한다.

가벼운 벌일 때는 나이 어린 장정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시행하지만 벌주를 내릴 정도가 되면 공개적으로 하여 경계를 삼는 것이 기본이었다 한다. 이 마을에서는 이 벌을 일러 깡매기 물킨다고 하고 벌을 받은 사람을 놀릴 때는 물킨 놈이라 일렀다.

송아지 따비

이 마을의 두레 벌 중 중간 정도의 벌이다. 이유 없이 두레를 거부하거나 여러 날 두레 공동 작업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행

했다. 따비란 논을 매는 두레 공동작업 시 논에는 일꾼들의 뒤를 오가며 밭에 밟히거나 호미로 판 흙에 치어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나 그 작업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뒤를 졸졸 따라다녀야 하는 것이 따비인데 어미 소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미 소를 따라 나온 송아지 뒤를 따라다니도록 벌을 주는 것이다.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송아지 궁둥이를 따라다녀야 하는 장정의 모습을 강요하는 이 벌에도 숨겨진 교훈이 있다. 송아지를 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그만인 것이다. 논에 든 송아지를 따라다니는 것은 힘겹고 창피한 일이지만 논에 들지 않은 송아지는 그냥 두어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농기(農旗) 기둥

이 마을의 두레 벌 중 엄한 벌에 속한다. 대부분 이 벌은 일상생활 중에서 불효나 도둑질 등의 인륜의 문제나 반사회적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두레가 내리는 벌 중 하나다. 아주 험한 불효는 마을 젊은이들의 교육상 나쁘다 하여 내쫓지만 작은 불효는 벌을 주고 용서하여 함께 산다.

농기 기둥은 여러 차례 작은 도둑질을 한 사람이나 용서받을 수 있는 정도의 불효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벌이며 여름두레 먹는 날 두레 마당에서 행해진다. 한천리의 여름두레는 칠월칠석에서 백중 사이, 즉 음력 7월 7일에서 7월 15일 사이 하루를 택일하여 날짜를 정하고 하영천 두레마당에서

행하였다.

여름두레 공동 작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공동 작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출력한 일수에 맞추어 받아가는 날이 여름두레 먹는 날이다. 이 날은 술과 음식을 마련하고 풍장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노는 날이라서 두레 구성원은 물론이고 마을에 사는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모이게 된다. 이런 행사장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함께 놀지도 못하고 한나절 내내 농기의 기둥에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이 <농기 기둥>이다.

별을 내리는 시간은 대부분 두레샷을 나 누고 두레의 경비를 결산하고 난 후기 때문에 오전 11시 경이며 묶은 것을 풀어주는 것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점심을 먹고 난 후이니 오후 2시 경이 된다. 결국 4시간 정도를 농기에 묶여 있어야 하는데 이런 모습을 어린아이들까지 보기 때문에 이 별을 당한 사람 중에는 마을에 살지 못하고 떠나는 사례도 있었다 한다.

두레 매

이 마을의 두레 별 중 가장 심한 별이다. 이 별은 부모나 조부모를 구타하는 정도의 심한 불효를 하거나 소도둑질을 한 사람에게나 행했다는 별이다. 이 별은 두레 구성원들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회초리를 때리는 별이다. 앞서 설명한 농기 기둥과 같이 진행하는데 묶인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두레에 참여하는 모든 남자들이 미리 준비한 회초리로 묶인 사람을 때린다. 때리는 횟

수는 죄상이 정하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이 때려야 한다는 점이다. 아는 사람이라거나 친척이라든가 친분이 있어서 때리기 싫은 사람이라도 모두 때려야 한다.

1990년대와 2000년도 채록 시 마을 노인들의 증언은 모두 본 적은 없지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정도라서 1930년 이후에는 시행된 적이 없었지만 이는 이 마을 최고의 두레별이었다.

회초리는 무궁화나무 가지나 싸리나무 가지만 사용하였고 두레공방이 쾨배자리를 시켜 만들게 했다.

영천두레 운영

두레의 규모

영천두레는 단일 두레다. 한천리 마을 전체에 하나의 두레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마을 안의 작은 마을이 3개인 경우 3개의 두레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천리는 하나밖에 없었고 이름도 <위아래영천두레>라고 불렀다. 이는 이 마을이 산간마을이라서 밭(田)이 많고 논(畓)이 적은 영농환경과 마을을 감싸안은 듯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단일 두레로 존재해온 것으로 보여진다.

두레의 구성원은 농사를 짓는 모든 집과 농사일에 출력할 수 있는 모든 장정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장 왕성했던 시절의 두레 규모는 60여 호, 출력 인원은 50명 정도였다 한다.

두레의 조직

이 마을 두레는 좌상, 대방공원, 공원, 충각좌상 각 1명을 두었다. 마지막 좌상은 박중화 씨로 기운이 세고 일을 잘하여 항상 두레꾼들 앞장을 서서 손수 일하는 사람이었고, 마지막 공원은 석두영 씨로 계산에 밝았다. 두 사람 모두 사망하여 현재는 만날 수 없다.

청소년이 장정 소리를 듣고 장정 품앗이를 할 수 있는 나이, 즉 두레 드는 나이는 일꾼이 많고 논농사가 적은 마을의 특성 때문에 20세였다. 물론 두레에 들 때는 공배음식이라 하여 막걸리 한 말과 봄두레 먹는 날의 음식거리를 내놓았다. 결혼을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무조건 꿩배를 인정했다.

봄두레

음력 4월 중하순에 하루를 택하여 봄두레를 먹었다. 두레 먹는 장소는 마을 앞 팽나무 둥구나무 아래의 공터였으며 이날 당해 연도 농가별 모내기 날짜를 잡고 품삯을 결정하며 꿩배자리를 확정한다.

한천리의 봄두레 먹는 날의 풍습 중 특이한 것이 있다. 다른 마을은 단순히 어른들이 풍장을 치고 즐기는데 반하여 한천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풍장을 가르쳤다는 점이다. 장정이 못된 청소년들이 1년 중 유일하게 풍장 악기를 쳐볼 수 있는 날이었다. 먹매는 대농에서 희사하는 물품과 가가호호 십시일반으로 모은 추렴과 꿩배 음식으로 충당했다.

1970년대 이전 이 마을 품삯의 기준은 다

음과 같다.

- 1) 장정의 품삯 - 쌀 2.5되 - 3되
- 2) 부녀자의 품삯 - 재화기준은 없으며 부녀간의 품앗이만 인정함.
- 3) 소(牛)품 - 장정 2품
- 4) 선일꾼 품 : 장정 1품
- 5) 꿩배 전 청소년의 품 : 장정의 반(0.5) 품 인정
- 6) 선고지 : 논 1마지기 쌀 2말(모내기 선고지 - 쌀 1말)

여름 두레

영천 두레는 두 물 두레다. 두 물 두레란 논매는 공동 작업을 할 때 초벌매기는 개인 별로하고 두벌매기와 세벌매기만 공동 작업으로 시행하는 마을을 이른다. 장정의 출력은 1농가 1인으로 한정하되 논이 없이 품팔이 하는 사람들의 출력은 두레에 들지 않은 사람도 함께 했다. 일한 음식은 출력한 가정 별로 개인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동 음식을 만들지 않았으며 서로 두레에 나오려하는 영향으로 공동 출력에서 빠진 사람에게 물리는 벌금인 궤는 없었다.

여름두레 먹는 날은 풍장치고 춤을 추는 놀이판에 씨름을 하는 정도 소박하였다. 이 마을 마지막 두레 풍장꾼은 상쇠 장익성, 중쇠 장갑성, 징 박갑산, 장고 운수산, 북 박병천이었으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地大本)의 농기를 5명이 들고 령기는 청색 영기 2매를 좌우에 두었으며 장정 1명과 소년 1명이 행하는 꽃나비를 세우고 벽구 4명 질

나래비 1명의 보통 규모였다.

두레싸움은 내산 두레와 싸웠다. 싸움의 이유 중에서 산골 두레라고 얹잡아 보이는 형태가 되면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두레였던 것으로 보이며 싸움을 하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마을의 두레에 먹매를 가장 많이 댄 부자는 한 섬지기 농사를 지었던 박병율이었고 두레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의 이름은 보관실이다.

두레의 소멸

일제 강점기에도 존속했던 영천두레는 1965년 다른 마을보다 조금 빠르게 소멸되었으며 봄 두레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새마을 공동 작업으로 대체되었다.

영천 두레 민속놀이 - 소놀이

영천두레는 특이하게도 영천두레만이 행하는 민속놀이가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이름은 소(牛)놀이이다. 소놀이는 가마니를 이용하고 벼짚을 이용하여 사람이 들어가 쓰면 소처럼 보이게 하는 기구를 만들어 장정 2명이 들어가서 춤을 추는 놀이였다. 마치 사자 놀음을 연상하게 하는 방법인데 평생 일을 해야 하는 소를 평생 일만해야 하는 농사꾼의 일생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던 민속이다.

처음에는 풍장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고 놀다가 중반에는 쟁기, 소지게, 씨래를 차례로 소에게 매어 일을 하는 모습을 놀이로 표현했는데 1945년 이후 시작된 우성면 풍장대회에 마을 대표로 출전하여 상을 받기도 하였다.



윗영천의 마을 앞 들의 모습 전형적인 산골 논외의 모습이다.

냄새나는 잡초밭에 땀으로 피운 연꽃

○ 정안천 연꽃 생태공원 조성, 김선택과 13명의 팀원들

이결재 | 소설가

가족들에게 자랑할 수 있었던 사업

“공무원 12년 만에 가장 가슴 설레었던 날이었슈. 메칠 전이 가족들과 장모님 모시구 이 연꽃 공원을 도는디 자랑스러우면서두 맘이 설레서 혼났습디다.”

간간히 충청도 사투리를 섞어서 말하는, 공주시청 굴삭기 기사로 재직하는 김선택 씨는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 첫머리에서 묻지도 않은 말로 입을 열었다. 그와 함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던 9명의 직원들의 얼굴도 그런 표정이 역력했다.

굴삭기 기사 김선택 · 이덕하, 덤프트럭 기사 김진용 · 정과순, 도로 관리 오세원 · 임원철 · 유길

현 · 이종달 · 신동영 · 최도영 · 우병길 · 이석현 · 김택훈 씨 등.

이들이 해낸 일은 최근 공주에서는 가히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획기적인 일이다. 의당면 청룡리에서 신관에 이르는 정안천변에 무려 3만 4천여 평에 이르는 연꽃 생태공원을 이들의 힘만으로 조성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곳은 의당면 사람들에게는 골칫덩어리였다. 속칭 여찬이산 모퉁이 도축장과 도계장이 들어서면서 환경은 고사하고 악취 때문에 한여름에도 자동차 문을 열지 못하고 운전해야 했던 곳이다. 웰빙의 영향으로 자전거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던 시기에도 냄새 때문에 이곳에서는 자전거 타는 사람을 구경하지 못했던 곳이다. 그러던 것을 만 2

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그것도 일반 공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훌륭한 연꽃 생태공원으로 변모시켰던 것이다.



잡초와 악취로 범벅이 되었던 정안천변에 조성된 연꽃 공원의 모습



시청 공무원들만의 힘과 기술력으로 이룬 성과

“일반 일꾼은 단 한명도 쓰지 않고 우리들의 힘만으로 해냈지유. 일할 때는 우리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지, 하는 생각두 했는데 해 노쿠 나닝께 암디다 내놔두 괜찮것구나 싶었슈.”

인터뷰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있던 사람이 한마디 건든 말이다.

“2007년 9월 쯤일규. 시장님과 사업 현장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디 시장님이 금강변하구 정안천변이 넓은디 시민들이 맨발루 걸어댕길 황톳길이 있었으믄 좋컇다구 하시능규.”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라 했다. 당장에 황토만을 다져서 길을 만들었단다. 시험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시멘트를 쓰지 않아 강도가 떨어져 자전거 바퀴나 자동차가 들어오면 금방 손상이 되었다. 김선택 씨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현장을 찾아다니고 시험을 반복하여 시멘트와 황토에 산화철을 재료로 배합하는 새로운 형태를 찾아냈다.

물론 반복적으로 시험을 해야 했다. 산화철을 많이 넣으면 색깔은 예쁜데 강도가 떨어지고 적게 넣으면 강도는 좋은데 시멘트 색이 나서 황톳길의 느낌이 나지 않아서였다.

그렇게 찾아낸 방법으로 2008년 1차 사업으로 1만평의 연꽃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곳에 투입된 장비는 덤프트럭 3대, 굴삭기 3대(중형2, 소형1) 카고트럭 3대 등 모두가 공주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였고 인력 역시 시청에서 도로 관리나 수해 복구 사업 등에 종사하는 시청의 직원들이었다. 외부에서 임대한 장비는 포대 시멘트를 쓰지 않고 탱크 시멘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벌크 1대뿐이었다.

말이 쉬워 1만평이지 냄새나는 잡초밭 1만평에 연꽃과 꽃밭을 조성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겨울 공사를 하는데도 악취가 심해 구역질을 했다 한다. 더구나 그들은 본연의 업무가 정확히 주어진 시청 직원들이다. 본연의 업무를 해가면서 틈이 나는 모든 시간을 이곳에 투자해서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쉽겠는가?

“힘들었던 건 두 가진디유 하나는 일이구 하나는 사람들의 입방아였슈. 일루 어려웠던 것은 모래가 전판인 흙을 파내 물을 가두는 일인디, 보통 해서는 물이 새능규.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걸흙을 긁어모아 두었다가 연못을 파구 그 흙을 덮은 뒤 도자루 계속 다진 거지유. 모래는 가라앉구 진흙이 올라오면서 물이 가뒀지대유. 그르키 힘들여 맨들었는데 사람덜은 좋게 말하지 않터라구유. 장마가 지믄 애물단지가 될 거라는 둥, 누가 그런디 여까장 와서 운동을 하구 구경을 하느냐구 말해대는 소리를 듣는디는 참 죽겠대유.”

조성 한 해 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2008년 봄에 완성된 1차 사업 지구에 사람이 모이지 않아 힘이 빠지던 차에 가을이 되면서 폭발적인 호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금강 둔치공원에서 걷고 뛰던 시민들이 연꽃



자체의 힘만으로 3만 4천평의 연꽃 공원을 조성한 직원들
- 모두 함께 찍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이 피어나는 생태공원으로 발
길을 돌리면서 한겨울에도 운
동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았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2차 사업
이다. 면적은 2만 4천여평. 일반
적인 사업비를 들어서 한다면
19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막대한 사업을 불과 3억의
예산으로 직접 시공에 들어간
것이다. 머뭇거리지도 않았다.



시멘트 타설이 없고 장비는 겨울에 시간이 많
으니 2008년 12월에 시작했다. 그리고 올해 5
월 그 막대한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다.

자전거로 완전히 순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작은 다리는 산성공원 수목 갱
신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벌목 나무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놓았고 운동을 나으
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늘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 사업팀은 하천법이 허용하
는 범위에서 나무를 이식해 심었으며 7개의
대나무 정자도 지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시장님이 생각한 것을
우리는 일한 것뿐이지요. 그런데 주말이든
사람의 어깨가 걸릴 만큼 많이 나와서 즐기
구 요새는 데이트하는 젊은이들까지 보이닝
께 공무원 되어서 흠으루 일다운 일을 한 것
같아서 행복하지유.”

“무엇보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 시장님이
참 자주 나오셨는데 어떤 일을 한다구 그런 시
간이 있겠슈. 그것만 해두 좋았슈.”

붕어, 잉어, 금붕어, 향어, 우렁, 메기, 동
자개, 가물치, 피라미 등을 방류하여 명실 공
히 생태공원의 모습을 갖추었고, 완성이 아
니라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곳
이 비록 전국적인 관광의 명소가 되기보다는
공주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공
간이지만 이들은 그야말로 냄새나고 잡초만
무성했던 냇가를 시민들이 즐기며 운동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시장님이 욕심을 부려 더 하자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어리석은 질문에 그들은 한 마디
로 대답했다. “합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토를 달았다. “이왕 맛을 봤으니까 10만평만
채울 수 있다면 평생 뗏뗏이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준말로 강조하는 그의 말에서 꽃 중의
꽃, 연꽃의 화사함 같은 공주의 내일을 보는
듯했다. 그들이 바로 공주의 얼굴에 미소를
담아낸 참 일꾼들이다.

항아리

임강빈



임강빈(任剛彬)

*1931년 공주 출생

*공주사범대학 졸업, <현대문학>
시 추천

*오랫동안 충남 및 대전 지역 중등
학교 교직생활 하고 정년퇴임

* 현재 대전에 거주

크고 작은 술한 항아리 옆
민들레가 피었다.

술 한 그루
굽어보듯 서 있는

그림 같은
애정.

무엇이나
가득히 담아주고 싶도록

그토록 하늘마다 향한
둥그런 문.

아아
나도

항아리 옆에 피어가는
노을이 되고 만다.

○ 아파트에 살 때는 제 구실을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항아리, 집을 짓고 이사를 오면서 대문 옆 한곳에 모아 두었다. 어머님이 쓰시던 항아리는 거칠고 내가 새댁일 때 사 모은 항아리는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거친 항아리는 소박해서 좋고 빛나는 항아리는 생기가 있어 좋다. 아무리 벽돌이나 시멘트로 이국적인 집을 지어도 마당에 항아리가 툇 앉아 있는 한 그 집은 지극히 한국적인 냄새가 난다. 평화로운 냄새가 난다. 그 평화로운 마당 한켠에서 항아리 속 간장 된장이 발효되어 가듯 우리 인생도 서서히 발효되어 곰삭을 것이다. 항아리가 있는 마당의 풍경이 평화로운 것은 그런 암시 때문은 아닐까?

글 | 김현주

유구시장에서 불처럼 뜨겁게 타오른 3.1운동

500여명의 주민들 ... 일제 항거 독립만세운동

유구 3·1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제막

기미년 3·1운동 당시 공주시 유구읍 유구시장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일제에 항거했던 일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제막됐다.

유구 3·1독립만세운동 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배효성)는 지난 8월 17일 유구읍 석남리 226-28번지 가로공원에서 유구 3·1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비 제막식은 이준원 공주시장을 비롯 후손인 류근환 씨(전 국회의원), 이기복 씨(홍익대 부총장), 류근창 씨(현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장)와 남만우 대한광복회 부회장 등 각계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에 제막한 유구 3·1독립만세운동 기념비는 1919년 3월 14일 유구 장날을 기해 당시 추계리 거주 황병주 씨의 주도 하에 500여명의 주민들이 일제에 항거해 독립만세운동을 불렀던 일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됐다. 또한 3·1독립만세운동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돼 투옥생활과 갖은 고초를 겪은 23명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이날 배효성 유구 3·1독립만세운동 기념비 건립추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당시 지역주민 500여명이 자발적으로 일제에 항거했으나 23명이 투옥돼 갖은 고초를 겪었다'

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 흔적을 찾아내 의미를 되새기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당시 독립만세를 부른 유구읍 만천리 대표 류석우 씨의 손자라고 밝힌 류근환 씨는 '개인적으로 조부님 산소 주변에 기념비를 세우려 했으나, 독립만세를 부른 장소에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3월부터 관계자들과 상의해 이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제막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념비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3.1운동의 정신을 불처럼 뜨겁게 피워 온 우리 민족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불의 이미지를 차용했다고 한마음 석공예 윤부철 작가는 설명했다. 윤 작가는 '민중의 의지는 곧 이 나라 자체와 동일시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태극기를 선택해 이 둘의 이미지를 조합한 조형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세 가지 탈 모형이 수만가지 ‘웅진탈’로 변신

‘직접 만든 탈 쓰고 퍼레이드에 참여해요’

제55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 일환으로 마련된 ‘웅진탈’ 그리기 전국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8월 23일 무령왕릉에서 열린 탈 그리기 대회에는 전국의 초등학교생에서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30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공주시는 이날 기존 탈과는 달리 가벼우면서도 착용감이 좋은 스티로폼 재질로 만든 사려·원만·자애 등 세 종류의 웅진탈 기본모형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주최 측에서 제시한 세 가지 모양의 웅진탈 기본 모형에 백제문화제와 공주의 브랜드 등을 그려 넣어, 자신만의 독특한 웅진탈을 만들어냈다. 이날 제출된 작품에는 무령왕의 왕관을 상징화하고, 공주시 브랜드를 그려 넣은 탈 등 다양한 탈들이 제출돼 무령왕릉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대회에 참가한 대전 신흥초(6년) 김다희 학생은 ‘하얀 탈에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왕관을 그려 넣어 백제탈의 의미를 높였다’며 자신이 직접 만든 탈을 쓰고 오는 10월에 열리는 백제문화제 탈 퍼레이드에 꼭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이태목 관광축제팀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모든 참가자들이 직접 탈을 만들어 봄으로써 웅진성 탈 퍼레이드의 참여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0 대백제전에서도 웅진탈을 응용한 다양한 행사와 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백제문화제의 흥행 아이콘으로 부상한 웅진탈의 상징화를 통한 백제탈의 인지도를 높이고, 백제문화제에 대한 전국적인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주시는 이번 대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미술 관련 학과 교수 등 심사 전문가를 위촉·심사했으며, 우수 작품은 제55회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전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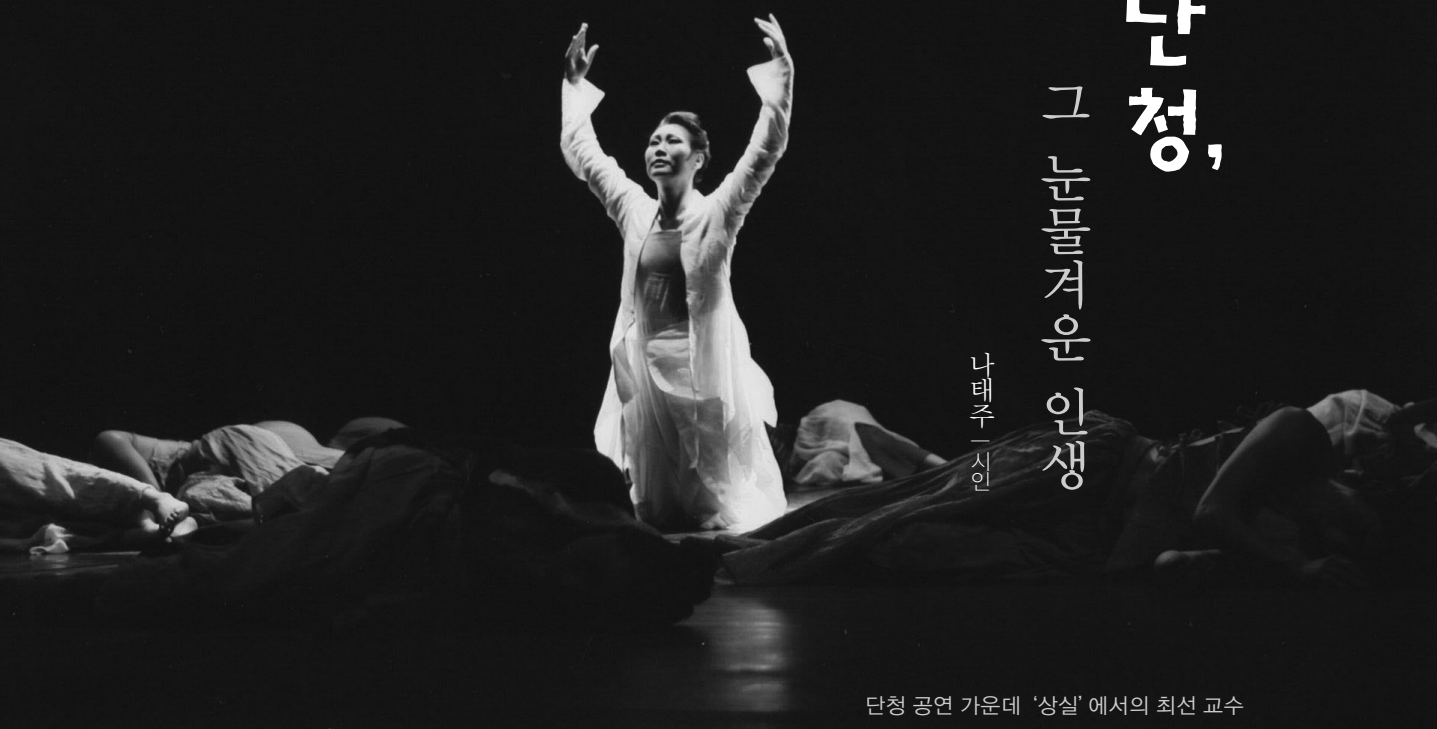
취재·정리 | 오희숙



단청,

그 눈물겨운 인생

나태주 시인



단청 공연 가운데 '상실'에서의 최선 교수

하나의 감동으로

실상 나는 무용의 문외한이다. 무용은 그저 연예의 한 가지일 따름, 예술무용까지는 이해가 없는 처지다. 그런데 최선 교수에게 덤석 붙잡히고 말았다. 이유는 감동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난 6월 18일(2009년) 저녁 시간, 공주문예회관 공연장에서 「단청(丹青)」이란 무용을 보고 크게 느낀 바가 있었다. 연이어 공주문화원 <문화가족전> 테이프 커팅 시간에 최선 교수 단독으로 추는 「부채산조」를 보았고, 다시 고마나루 여름축제에서 최선무용단의 「천무(天舞)」를 보았다. 나로서는 놀라움이었고 새로움이었다. 기껏 무용이라 하면 살풀이나 궁중무용, 승무 같은 고전무용을 떠올리고 대중들을 즐겁게 하는 기방 춤 정도로만 각인되어 있던 나의 '춤관'에 일대 변혁이 일어난 것이다.

무용은 나에게 무엇인가?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최선 교수에게 '무용은 나에게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던진다. 이것은 예술가에게는 가장 결례가 되는 무모한 질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다. 최선 교수는 쉽게 대답을 마련하지 못한다. 하긴 시 쓰는 사람인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언필칭(言必稱) 나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시는 나에게 공기요 밥이라고. 나는 대답 듣기를 잠시 유보하고, 그러면 언제부터 왜 무용을 시작했는가, 무용가의 연원을 묻는다. 최 교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무용가로서의 꿈을 키웠는데 논산 썬뜰여자고등학교 교사였던 막내이모의 권유에 따라 무용을 시작했고 엄마의 지지가 무용가의 길을 가는데 밑 걸음이 되었노라 한다. 그저 춤추는 것이 좋았노라 한다. 공주

사범대학에 진학, 유학자 교수를 만나 제자가 되었는데 그 인연이 한국무용의 맥을 잇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유학자 교수는 김백봉 교수의 제자이고 김백봉 교수는 또 일제시대 전설적인 춤꾼인 최승희의 제자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최승희→김백봉→유학자→최선의 줄로 한국정통무용의 맥이 이어져 내려온 셈이다.

한국 정통무용의 계승자

최선 교수는 현재 공주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이며 중요무형문화제 제 27호 <승무> 전수자로, 김백봉 춤 보전회 이사로, 최선무용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선무용단은 공주대학교 대학원생이나 졸업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창작 춤을 공연하는 무용단이다. 최 교수는 창작 춤을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내용으로 새롭게 만든 춤'이라고 정의하는데 무용가로서 창작 춤을 공연한다는 것이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사람, 의상, 무대, 안무와 같은 인적·물적 자원이 만만치 않은데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라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또, 어렵게 공연하는 작품이 번번이 단발로 끝나게 되어 여간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 본인이 대학 교수로 있어 직접 안무도 할 뿐더러 출연도 하고 제자들을 무용단원으로 동원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1회 공연 때마다 3천만원의 비용(무대 장치와 장비가 있는 상태에서 조명, 연출, 무대감독에 드는 돈이 기본적으로 2천만원 이상 필요)이 든다는 것이다.

다시, 무용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쯤에서 나는 다시 맨 처음 던졌던 물음을 꺼내 놓는다. 그럼 무용은 나에게 무엇인가? 비로소 최선 교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무용관을 내려놓는다.

“무용은 삶을 이루는데 다시 한 번 활력을 주고 자신의 삶을 되새기게 하고 복돋아 오르게 하는 촉매제입니다. 때로는 저도 편안하게 살고 싶지요. 그렇지만 무용은 쉽사리 포기하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왜 아니겠나? 창작의 길엔 고통과 회의가 따르게 마련이다. 무용가 최선 교수에게 있어 무용은 애기 낳는 엄마의 입장이 아니겠나, 짐작해본다. 다시는 애기 낳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애기를 낳고 싶어 하는 여자들의 마음처럼 말이다.

창작 무용 「단청」

그만큼 이야기를 접고, 나는 지난번 보았던 창작무용 「단청」에 대해서 듣기로 한다. 「단청」은 2003년 전국무용제 금상 수상작품이다. 당시 세 개의 신(scene)으로 구성, 35분짜리 중편이었는데 이번에 다섯 개의 신으로 확대하여 70분짜리 대작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총동원 무용수 32명. 가운데에는 최선 교수 자신과 객원 무용수 네 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최 교수는 예술 총감독, 안무 및 출연을 담당하고 있다. 그녀의 혼이 고스란히 바쳐진 작품이라 할 것이다. 「단청」은 신마다 독특한 주제를 담고 있다. 신화, 역사, 시간, 상실, 단청 등이 그것이다.

「단청」이란?

전통적으로 단청은 건물이나 회화작품에 그림이나 무늬를 그려 넣는 것을 말한다. 다섯 가지 색을 사용한다. 청, 적, 백, 흑, 황 등. 이는 또 동양사상의 근본이라 할 음양오행설에 바탕을 둔다. 음양오행설은 방위나 계절, 색깔, 사신(四神), 사덕(四德)이나 사단(四端), 시의 형식과도 통하는데 무엇보다도 인생의 단계를 설명하는데 좋은 단서를 제공한다. 하므로 창작무용 「단청」은 보통의 춤이 아니다. 바탕에 철학적 흐름을 깔고 있으며 나름대로 스토리를 차용하고 있다. 얼핏 보기로 「단청」은 한 사람의 일생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다. 사전지식이 없는 관객의 눈으로는 <출생→유·소년기→청·장년기→노년기→영혼의 세계>로 읽혀지기도 한다. 실상 「단청」은 그다지 이해하기 쉬운 작품이 아니다. 내용이 깊숙하고 말해주는 바가 의미심장한 작품이다. 막이 열리면서 관객은 현란하고 신비한 무대장치와 조명과 음악에 압도된다. 그리고 무리지는 무용수들의 독특한 몸놀림에 눈을 크게 뜨게 된다. 분명 묵은 주제임에도 전혀 새롭다는 느낌을 준다.

인생의 사계

생명체가 앞에서 깨어나듯 수많은 무용수들이 꼬무락대면서 일어나는 ‘신화’의 세계, 1장을 지나 2장에서는 커다랗고 둥근 원을 무대 가득 그리면서 동남서북 사방위에 남자 무용수들이 각각 청, 적, 백, 흑의 복장으로 마주서고 중앙에는 황색의 옷을 입은 여자 무용수가 서서 네 남자를 어우르면서 ‘역사’의 장을 펼친다. 바로 최선 교수다. 중앙은 색깔로선 황이요, 사단으로선 신(信)이요, 계절로선 환절기인 바, 바로 동남서북을 조화

시키는 ‘어미’의 역할이기도 하다. 3장은 ‘시간’의 장으로 여름을 의미하는 붉은 옷의 남자 무용수가 나와 독무를 하면서 여자무용수들과 어울린다. 힘차고 장쾌하다. 춤이 끝난 뒤 붉은 옷의 무용수가 서 있던 자리의 무대가 꺼지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간다. 아! 조그만 탄성이 나온다. 그것은 우리 공주의 문예회관에도 저런 장치(오케스트라 피트 orchestra pit)가 있었는가 하는 데에 대한 감탄이기도 하고 무성하던 인생의 여름이 지나간 것에 대한 애석함의 표출이기도 하다.

아, 가을!

무대 앞자리가 꺼진 상태로 가을을 의미하는 흰옷 입은 남자 무용수가 나와 여자 무용수를 이끌며 춤을 춘다. 동시에 애절한 무대 음악이 흐른다. 무대 가득 보이지 않는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느낌이다. 아, 가을이구나. 가을이야말로 인생의 결실기. 인생의 황금기. 무엇이든 가득 차 있다. 넘쳐흐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이 아니다.

어울려 춤을 추던 남녀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 싶더니 여자 무용수가 가볍게 뛰어올라 남자 무용수의 품에 안긴다. 그야말로 잠시 동안이다. 잠시 동안 그렇게 남자의 품에 딱 한번 안겼다가 내려왔을 뿐이다. 아! 나의 입에서는 다시 한 번 탄성이 나온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가을이 끝나 가는데... 저러기 위해서, 저 한 번의 따뜻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네 인생은 그렇게도 부대끼며 고달프게 살아왔던 것이다. 저걸 어찌면 좋으랴...

여자 무용수의 가벼운 옷자락에 음악은 부서져 달빛처럼 나부끼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 대목에서 와락 눈물을 쏟아놓고 만다.

다시 봄의 세계

가을의 장이 끝난 뒤 꺼진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먹장삼을 휘두르며 여러 무용수들이 올라온다. 마치 죽음의 세계로부터 회생하는 사람들 같다. 겨울의 장이다. 한동안 겨울의 정경이 스쳐간 뒤 봄의 세계를 보여준다.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환한 영상이 나타나고 울긋불긋 꽃잎을 숨긴 듯한 초록빛 의상의 무용수들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봄이 왔음을 고지(告知)한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사계절을 봄→여름→가을→겨울의 순으로 다루지 않고 여름→가을→겨울→봄의 순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계절과 인생에 대한 독특한 해석이 들어있다. 춘하추동으로 하면 지극히 고식적인 해석이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결말이다. 그러나 봄을 맨 나중에 놓음은 다시 사계절이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생과 계절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역설하고 싶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양적 인생관의 입장이다. 서양의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와는 구별되는 점이다.

상실과 대단원

4장은 '상실'의 장이다. 최 교수가 다시 무대에 나와 무용수들을 무대로 끌어내면서 활기를 되찾고자 한다. 무용수들도 '퇴색'과 '상실'을 떨쳐내려고 몸부림치는 동작이 역력하다. 뒤섞인 혼돈의 삶 속에 조화를 찾기 위한 노력이다. 노랑 옷을 입은 최 교수가 질서의 조정자 역할을 맡는다. 카오스 속에서의 로고스의 열망이겠다. 마지막 장 5장은 에필로그. 대단원으로서의 '단청'을 종합하는 장이다. 세 개의 백색 문이 하늘에서 차례로 내려온다. 4장에서 쓰러졌던 최 교수가 일어나 그 문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한 남자 무용수도 따라서 들어간다. 연출가의 의도는 '유구하고 변함없는 단청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 하지만 관객의 눈으로는 인간의 사후세계, 영혼의 세계처럼 보인다.

끝나도 끝나지 않은 '단청'

어쨌든 「단청」은 끝났다. 그러나 '단청'은 끝난 것이 아니다. 단청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발전하고 또 변모해나갈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네 인생과도 같다.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난다 해도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의 업적과 후일담과 추억과 향기가 우리 주위에 남는다. 뿐더러, 그의 인생의 의도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 계승되고 있음을 보기도 한다. 아, 이 얼마나 깊은 인생인가! 눈물겨운 사연인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여러 차례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이 얼마나 철부지 노년인가! 그럴 때마다 마주 앉은 최 교수도 따라서 여러 장의 크리넥스를 뽑아 눈두덩을 훔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한 시간도 넘게 마주앉아 상호간 인생과 예술에 공감하면서 함께 눈물을 훔치는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 이것은 분명 귀하고 특별한 경험이다. 대담을 마치면서 최 교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다시 좋은 무용을 해보겠다는 의욕이 저절로 생기는군요. 그리고 보면 무용은 저에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제공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당초 내가 던졌던 질문인 '무용은 나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최 교수의 최종적인 답변처럼 들린다.

공주를 소재로 한 가요

이병수 | 작사가

우리나라 웬만한 고장에는 자기 고장의 아름다움과 특별한 정취를 소재로 한 노래가 하나 둘쯤은 있게 마련이다. 유독 공주에만 그런 노래가 없어 의아하고 섭섭했던 바이다. 그런데 얼마 전 문화원으로 이병수 웅(87세)이 찾아와 귀중한 자료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이병수 웅 자신이 직접 작사하고 서울의 우수한 작곡가가 작곡하고 유명한 가수가 노래한 공주에 관한 가요였다. 이 노래들은 1960년대 중반에 제작 발표된 노래들이다. 반가운 마음으로 여기 소개해보고자 한다.(편집자)

공주의 노래 · 1

추억의 공주

이병수 작사/ 최인봉 작곡/ 박재란 노래

말없이 흐르는 공주 금강아
옛 님이 건넌 곳 어디이드나
그리운 그 얼굴 보이지 않고
기다리던 쌍수정만 변함없구나
옷자락 스며드는 공복루의 저녁바람
오늘도 그 추억이 아롱거리네.

한 복판 솟아있는 공주산성아
백제의 옛 궁터가 어느 곳이나
그 시절 그 사람은 어디로 가고
지나간 발자취만 남아있구나
저 멀리 들려오는 동학사의 목탁소리
계룡산 기슭에 먼동이 트네.

(1966년 킹레코드회사 제작, 발표)

공주의 노래 · 2

그리운 곰나루

이병수 작사/ 최인봉 작곡

봉황산 감싸 도는 유서 깊은 곰나루
두동실 나룻배는 오고 가건만
건너간 그 옛 님은 언제 오려나
그리운 그 옛 님은 언제 오려나
아 못 잊어 다시 찾는 공주라 곰나루.

추억만 남아있는 한 많은 곰나루
오늘도 나그네는 오고가는데
떠나간 내 님은 다시 못 오나
흘러간 그 시절은 다시 못 오나
아 못 잊어 다시 찾는 공주라 곰나루.

공주의 노래 · 3

추억의 쌍수정

이병수 작사/ 손석우 작곡/ 김상희 노래

비단강 흘러흘러 세월은 가도
그 마음 내 사랑엔 변함없으리
계룡산 봉우리에 오늘도 꽃구름
아름답게 떠올라 보랏빛
젊은 꿈은 마냥 부푸네.

마곡사 풍경소리 정다운 사연
그 님의 목소린 양 가슴 울리네
쌍수정 별빛 아래 불타던 두 가슴
서로 잊지 않는데 그 님은
어디 가고 바람만 부네.

(1965년 신세기축음기주식회사 제작, 발표)

공주의 노래 · 4

공주의 밤

이병수 작사/ 손석우 작곡/ 김선풍 노래

공산성 이름 높은 백제의 서울
달빛에 물들어 곱기도 하다
저 달을 바라보며 둘이 거닐던
봉황산 기슭엔 등불이 깜박.

그리운 그 얼굴 내 옆에 없고
속세의 무상을 일깨워주듯
영은사 목탁소리 가슴에 번져
공주의 이 밤은 깊어만 간다.

(1965년 신세기축음기주식회사 제작, 발표)



*이병수(李秉秀) 옹은 현재 공주시 중학동 167-25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분으로 지난 날 공무원 생활을 하였고 향교에도 관여한 공주의 토박이 인사 이시다.

아름다운 공주

한승수 총리
민생탐방위해 공주 방문
지역현안사업 청취 등 민생탐방 실시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8월 6일 지역 민생탐방을 위해 공주시를 공식 방문했다. 한 총리의 공주시 방문은 최근 국민의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파악, 정부시책에 반영코자 민생탐방 형식으로 방문 일정이 짜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총리 일행은 오후 4시 10분경 공주시청에 도착, 이준원 공주시장, 김태룡 공주시 시의회 의장 등 내빈들로 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동완 충남도 행정부지사, 공주시 기관·단체장들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었다.

한 총리는 이준원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일반현황과 역점사업,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종합민원실을 둘러 방문 중인 시민들과 직원들을 격려해 주었다. 이 자리에서 이준원 공주시장은 1932년에 세워진 현 금강교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안전성 위협에 노출되는 등,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금강살리기 사업에 제2금강교 가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한 총리는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는 당부와 함께 역동적이며 활력이 넘치는 공주시민들의 모습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 일행은 오후 4시 35분경 공주시청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다음 목적지인 대전 카이스트로 떠났다.

이준원 공주시장,
2009 한국 문화·관광서비스
대상 수상



이준원 공주시장이 한국 문화·관광서비스 대상을 수상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문화·관광서비스 대상에서 5도2촌 주말도시 사업, 공주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등 탁월한 정책을 펼친데 힘입어 혁신정책진흥 부문의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대회를 주최한 (사)한국관광평가연구원(원장 김동승)은 4일,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시장은 민선4기 3주년 동안 도시·농촌 상생을 위한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 전국 최초의 사이버 공주시민제도 도입 등 차별화된 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 시장은 그동안 관광분야 발전을 위해 역사테마가 살아있는 관광거리 조성, 매주 토요일에 공주대 역사학과 교수 등과 함께하는 백제문화학교 운영, 템플스테이,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관광산업의 인프라, 프로그램 확충에 큰 힘을 쏟아 왔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2006년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주5일 근무에 따른 주말도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회원권 개념의 준시민제도 도입'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제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바 있다.

市, 알밤 줍기 체험행사

9월 1일~10월 10일까지 운영



“가족, 연인과 함께 토실토실 살찐 알밤을 주우며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밤의 고장 공주시역 일부 밤 재배농가들이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알밤 줍기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정안, 계룡, 반포면 지역 등 관내 밤 재배 44개 농가들이 마련한 알밤 줍기 체험행사는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도시민들에게 알밤 줍기 체험행사를 펼친다.

따라서 가족·연인·동료들로 구성된 도시민들은 일정금액의 입장료(1만원)만 내면, 손수 주워 온 밤을 3kg까지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

이번 알밤 줍기 체험행사에 참여한 대다수의 밤 재배 농가들이 1일 수용인원을 100명에서 최고 3천명까지 잡는다. 가정이나 직장 단위의 단체참여도 환영한다.

알밤 줍기 체험농가는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에 접속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농가에 예약 신청하면 된다.

곽병수 산림소득담당은 “알밤 줍기 체험행사는 도시에민에 우수 품질의 알밤을 현지에서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일손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공주시, 수도권 이전 및 창업 투자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수도권 기업들이 공주시로 속속 입주하고 있다.

공주시는 지난 8월 26일, (주)대산이노텍 등 7개 기업과 정안 제2농공단지 및 개별 입지 입주에 따른 투자협약을 체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날 공주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준원 공주시장, 김태룡 공주시의회 의장, 이동섭 공주시기업유치활동위원장을 비롯 (주)대산이노텍 강성원 대표 등 수도권 이전기업 및 (주)새턴산업 이병식 대표 등 창업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식을 맺고 상생 발전에 협력기로 다짐했다.

이날 공주시는 정안면 사현·광정리 일원에 조성중인 정안제2농공단지에 (주)대산이노텍(대표 강성원), (주)우진페인트(대표 최광석), (주)테크자인 라이트패널(대표 강신철), (주)퓨어멤(대표 정연석), (주)퓨어엔비텍(대표 장재영)과 이전입주에 따른 투자양해각서(MOU)를, (주)새턴산업(대표 이병식), 한국렌탈비즈(주)(대표 이동준) 2개 기업과 공주시 태봉동 일원의 개별입지내 창업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교환했다.

한편, 공주시는 이들 7개 기업의 입주를 통해 9만 690㎡ 규모에 329억원, 276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내는 등 막대한 파급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름다운 공주

‘민원서류’,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

“전화 한통화만 주세요. 민원서류를 정성껏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공주시가 가을 추수철을 맞아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를 운영한다.

시는 가을철 농번기에 부족한 농촌일손을 돕기 위해 농작물 수확이 본격화되는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 동안 본청을 비롯 읍·면·동에서 다양한 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 대상자에 친절히 배달해 줄 계획이다.

전화 한 통화로 발급, 배달해 주는 민원은 건축물관리대장을 비롯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총 7종.

농민들이 논, 밭, 과수원 등 현장에서 민원서류를 전화, 생활민원, 출장 중인 마을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대상자에게 직접 배달해 주게 된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한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는 올해 봄철에만 481건을 신청해, 지난해 가을철과 대비해 70.6%가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주시 오성식 시민봉사과장은 “민원을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찾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는 농촌의 현실적 어려움을 함께하는 민원행정의 실천”이라며 “농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종인플루엔자로부터 안전하게



최근 국내·외에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잇따라 사망자가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외출전후에 손과 발을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80% 정도가 예방되며,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대국민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증상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1.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특히 만성심장·폐질환이 있거나 천식, 고혈압, 당뇨병 환자, 비만이거나 임신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하거나 옷으로 가리는 등 기침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4.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며,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5.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 기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바로 진료를 받는다.

내 고장의 숨소리

공주종합터미널 시대 개막

시외버스 · 고속버스 통합시설 준공식 가져



공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사업이 해결되면서 공주종합터미널 시대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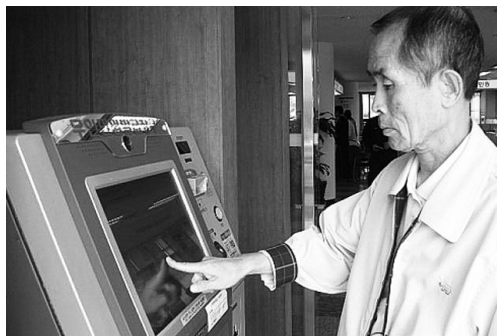
공주시는 지난 8월 20일 오후 3시 신관동에서 이준원 공주시장, 김태룡 공주시의회 의장을 비롯, 도의원, 시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외버스·고속버스 통합시설인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준공식을 가졌다.

새롭게 문을 연 고속버스, 시외버스 공용의 공주종합버스터미널은 신관동 609번지 일원에 총 23억여 원을 들여 4,989.2㎡부지에 1,617㎡ 규모의 현대식 통합터미널로, 출발 홈 7대, 도착 홈 3대, 주차장 35대는 물론 건물옥상에는 44대의 유료주차장 시설까지 갖춰져 있어 종합터미널의 면모를 갖췄다.

특히, 금호고속과 삼흥·금남고속 등 6개 버스회사에서 공주~서울, 공주~대전 등 19개 노선에 1일 455회를 운행함으로써 이용자의 이동로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파행으로 치달았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이 공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13만 공주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공주시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 고속버스, 시외버스터미널의 통합운영으로 환승기능을 갖춘 현대식 시설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 민원발급기 산성시장에 설치



사진은 중학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진 공주시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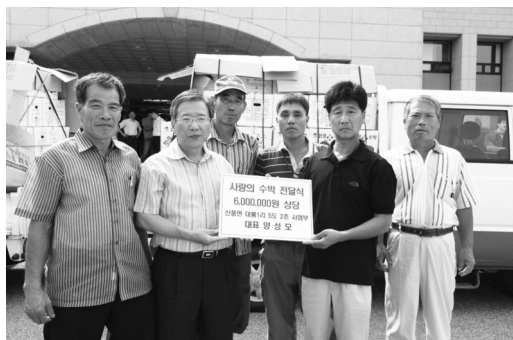
공주시는 산성 재래시장 상인과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산성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에 설치했다.

따라서, 공주시 관내에 들어선 무인 민원발급기는 본청을 비롯 대전지법공주지원, 유구읍, 계룡면, 장기면, 정안면, 중학동 등 총 11개소에서 12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설치한 산성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재래시장 상인과 소비자들이 모이는 생활현장으로, 앞으로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손쉽게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져 원거리 거주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의료급여증명,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병적증명, 농지원부,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총 11종이다.

대룡1리 5도2촌 주말도시, 수박 600통 기탁해 ‘화제’



공주시의 5도2촌 주말도시 한 사업부 주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말복을 맞아 직접 재배한 수박 600통을 선뜻 기탁해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단체는 공주시 신풍면 대룡1리 5도2촌 주말도시(위원장 양성모, 52) 사업부.

대룡1리 5도2촌 주말도시 사업부 주민들은 지난 8월 13일 관내 불우이웃과 시민을 위해 고생하는 공무원들에 전달해 달라고 수박 600통을 공주시에 기탁해 왔다. 이 단체의 주민들이 기탁한 수박은 지난 6월 초순 양성모 위원장의 하우스 1,950㎡ 면적에서 묘목식재와 수확을 공동 작업으로 전개한 것으로 당도가 매우 높고 먹기가 편한 일명, 씨 없는 수박이며 시가만 해도 600만원에 이른다.

공주시는 기탁 단체의 뜻에 따라 지난 8월 13일 사회복지시설인 명주원과 지역아동센터인 굴렁쇠 등 관내 불우시설 25개소에 500통의 수박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어, 남은 100통의 수박은 시청 각 부서에 전달해 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은 공무원들에게 즐거운 한때의 시간을 보내도록 했다.

한편,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신풍 풋고추의 주산지인 대룡1리 마을은 공주시의 5도2촌 주말도시 시범마을로 편입되면서 매년 겨울 초입에 도시민을 초청, 김장 담그기 축제 등을 개최해 오고 있다.

공주심마니동호회, 공주 한성식 씨에게 산삼 전달



공주심마니동호회(회장 정연문)가 공주시 계룡면 한성식(여, 72세) 씨에게 산삼 5뿌리(산삼 1세트)를 전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정연문 공주심마니동호회장은 지난 7월 20일 오전 11시 공주시장실을 찾아 이준원 공주시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계룡면 죽곡리 한성식 씨에게 산삼을 직접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번에 산삼을 받은 한성식 씨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앓는 등 몸이 상당히 쇠약한 상태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많을 텐데 이렇게 귀중한 산삼을 받게 돼 죄송스럽다”며 “산삼을 마련해 준 공주심마니동호회에 고마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100년에 한 번 핀다는 행운의 토란꽃 공주시, 정안천 생태공원에



공주시가 지난 4월 3일에 연꽃을 식재하면서 추가로 식재한 토란 구근이 꽃대가 올라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공주시 고마나루에서 한여름 밤 축제 열려

공주문화원 문화학교 가곡, 풍물, 중국어, 댄스스포츠반 공연 선보

웅진문화회가 주최, 주관하는 2009 공주 고마나루 축제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웅진동 고마나루 야외무대에서 한여름 밤을 수놓으며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번 행사의 공식 일정으로 마지막 날인 8월 9일 공주문화원 문화학교 가곡반, 댄스스포츠반, 중국어반, 풍물반 수강생들의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가곡반은 먼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부르며 아름다운 선율로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이어 '경기민요'와 '보리밭'을 부르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었다.

흥겨운 가락 아래 버나돌리기와 열두 발상모로 더욱더 신명나는 풍물반 공연으로 시민과 출연자들 모두 하나가 되었으며, 댄스스포츠반의 라틴댄스와 밸리댄스 공연이 이어져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었다.

또한, 중국어반은 영화 「첨밀밀」 주제곡인 「티엔미미」와 「월량대표아적심」을 부르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한껏 선보였다.

한편, 공주 고마나루 축제는 매년 개최하는 축제로 무더운 한여름 밤 가족과 함께 흥겹게 보낼 수 있는 휴식시간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문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풍물반의 버나돌리기



가곡반



풍물반



중국어반



댄스스포츠반



공주문화원,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유적답사’ 실시

서울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인사동, 종묘 등 답사

공주문화원(원장 나태주)은 문화유적 답사를 통하여 공주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유적에 대한 애호의식을 일깨워주고 또한 실제적인 지식을 함양,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유적답사를 통해 호연지기를 기르며 우리 조상의 얼과 정신을 배우고자 ‘2009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유적 답사’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번 유적답사는 8월 22일, 29일, 30일, 9

월 5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조선시대 으뜸 궁궐인 ‘경복궁’과 전통사회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활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터전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전통거리 ‘인사동’, 조선시대 역대의 왕과 왕비 및 추존(追尊)된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모신 왕가의 사당 ‘종묘’를 답사하며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뜻 깊은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문화유적답사를 다녀와서

김 승 임 | 공주문화원 닥종이반 강사

올 여름은 유난히 폭염주의보가 자주 기승을 부렸다. 더위가 한풀 꺾일 즈음해서 공주문화원에서 서울의 경복궁과 종묘, 국립민속박물관, 인사동을 답사한다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가보기로 했다. 서울을 떠나서 산지 어느새 30년. 경복궁은 내가 학창시절 미술대회를 자주 나가곤 했던 곳이다. 궁궐은 미술대회 때, 능묘는 소풍 때 자주 갔었다. 빛바랜 흑백사진의 교복 입은 모습, 미술대회가 끝난 후 누각 앞에서의 사진은 지금도 내 앨범 속에 남아 있다.

경복궁 입구를 들어서니 웬지 울컥했다. 주위는 너무 많이 발전이 되었지만 서울 한복판의 궁궐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다. 오래전 영화 「마지막 황제」의 첫 장면에서 자금성을 구경하는 관광객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 장면이 지금의 내 모습만 같아 웃음이 나기도 했다.

경복궁 입구로 들어서니 근정전이 한눈에 들어왔다. 몇 해 전, 모 방송에서 드라마 「명성황후」가 방영되었는데 대사 중에서 대원군이 경복궁을 왜 지어야 하는지를 역설하는 대목이 있었다. “중국의 자금성만은 못해도 대궐문을 열면 임금의 정무를 보는 근정전이 바로 보여 외척이 대궐을 범하면 어찌 하겠느냐?” 라고 말했던 대목이다.

세월이 많이 지난 것을 느낀 건 근정전 입구의 품계석이 많이 닳아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단아한 건물의 단청은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보여주는 듯했다. 인정전을 지나 금방이라도 상궁나인을 부르는 종전마마의 음성이 들릴 것만 같은 교태전, 왕위에 오르기 전에 세자가 머물던 동궁전, 임금이 연회를 베풀던 경회루는 옆서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이 변함이 없었다.

임금의 효성을 알 수 있는 자경전의 굴뚝

문양은 화려했다. 그 많은 궁궐을 연기도 안 나게 불을 때고 살았다 하니 신기했다. 향원정 옆의 작은 별궁 건청궁은 양반집을 본떠서 만든 궁이라 했다. 그곳에서 나라를 걱정하며 한 많은 삶을 마감한 명성황후의 애끓는 소리가 지금도 들려오는 듯했다.

이어 엽서에서 많이 본 민속박물관에 둘러 조상들의 체취를 느끼고 다음 코스인 종묘로 이동했다.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곳이라 웅장하면서도 고즈넉해 보였다. 둘러보던 중 공민왕 신당이 눈에 들어왔다. 고려 임금의 신당이 있다는 게 조금은 생소했다. 조선 태조가 종묘를 지을 때 공민왕의 업적을 기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신당을 지었다고 한다. 굳게 닫힌 대문 안을 못보고 온 것이 많이 아쉬웠다. 사극에서 흔히 나오는 ‘종묘사직’이란 말의 뜻이 이해가 되었다. 정전과 영녕전으로 나뉘어져 있다. 정전은 조선을 개국한 태조와 재위 중에 공덕이 큰 왕과 왕비의 신주 49위에 19감실에 모셔져 있다고 했다. 영녕전은 왕위 재위기간이 짧은 왕과 왕비의 신위가 모셔진 곳이라 했다. 정종, 문종, 단종, 예종, 경종처럼 짧게 사신 임금의 영녕전을 지나니 마음이 싸해짐을 느꼈다. 왕위에 있었으면서도 종묘에 들지 못한 연산군과 광해군은 그저 묘로만 남겨져 있다고 한다.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 씨도 따로 사당을 지어 그 혼백을 위로해 준다고 했다.

마지막 코스인 인사동은 한국과 외국이 공존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 안에 한국적인 것은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문화답사는 끝났다. 일국의 국왕이 살던 궁궐은 개발이라는 것에 밀려 쓸쓸함을 남기고 그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복원한 모습이 아쉽다. 앞으로 나의 후손들은 궁궐을 보면서 또는 종묘를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조상 뿌리찾기사업

‘공주(공산)이씨’ 학술세미나 개최

공주(공산)이씨 학술세미나가 9월 19일(토) 오후 1시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공주유림(향교, 유도회), 공산이씨 문중 후손,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공주의 조상 뿌리 찾기 사업은 공주를 텃 줄로 하는 저명 성씨들의 고향 바로알기와 전통 찾기 사업으로 공주시가 역점을 두어 공주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 사업내용

1) 학술세미나 일정

13:00 ~ 13:30 개회사: 나태주 공주문화원장

축 사: 이준원 공주시장

13:30 ~ 15:00 주제발표 및 발표자

이명성, 이명덕의 행적과 공산이씨 : 임선빈(한국학중앙연구원)

명탄서원의 역사와 변천 : 이해준(공주대학교)

공주의 공산이씨 유적 : 홍제연(충남역사문화연구원)

15:00 ~ 15:30 종합 및 정리

15:30 ~ 17:00 유적답사 및 해설(프리젠테이션)

17:30 ~ 폐회(중중대표 인사)

2) 유적답사

- 답사지역 : 명탄서원, 공산성 등

■ 공주(공산)이씨 책자 발간

- 성씨별 유래, 인물, 유적, 자료 총괄

- 발간 : 11월말예정

■ 학술세미나 추후 일정

- 경주이씨: 10월 25일(일) 확정

- 남평문씨: 11월 17일(화)

- 진주유씨: 11월 중 실시 계획



무령왕 헌공 다례

2009년 6월 13일. 무령왕릉이 자리하고 있는 공주시 금성동 송산리 고분군의 잔디밭에서 열린 무령왕 헌공다례에 다녀왔다. 무령왕의 탄신과 봉어일을 즈음하여 마련된 이 행사는 백제차전통예절원(원장:지희순)가 주최하는 행사이다. 올해로 3회째라는데 전국에서 온 다도인들이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고 자기 고장의 차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다. 일본에서까지 참여했다니 국제적 행사로 보였다. 나는 김천에서 온 다도 모임에 들어 지희순 회장과 차 한 잔을 마셨다. 그 자리에서 행주와 다동이란 말도 처음 알았다.



공주 청소년동아리 축제

2009년 7월 18일. 공주대학교 야외무대에서 열린 공주청소년 동아리 축제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학교생활과 여가선용을 위해 금강청소년문화진흥원(이사장: 환성 스님, 원장, 김학수 교수)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봄가을로 1년에 두 차례 열린다 한다. 선악된 일이 있어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중반 이후부터 보았는데 청소년들 동아리답게 춤과 노래 솜씨가 대단했다. 현장에서 문화원의 박정란 운영위원, 신용희 이사, 이일주 이사, 유석근 부원장 등을 만났다.



고마나루 여름축제 개막식

2009년 7월 25일, 오후 8시부터 열리는 고마나루 여름축제 개막식 행사에 참석했다. 고마나루 여름축제는 공주의 대표적 여름축제로 올해 14회째이고 웅진문화회(회장: 최용욱)에서 주관·주최하는 축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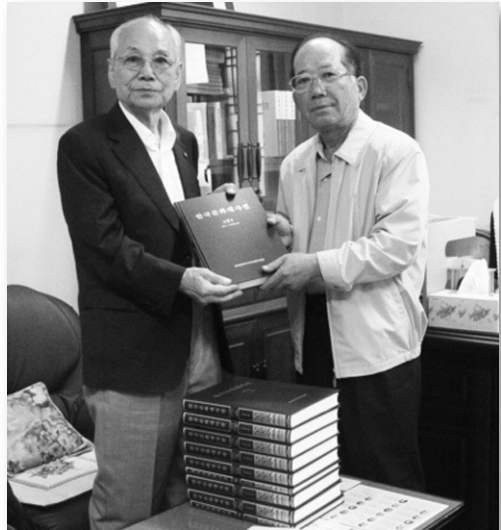
웅비탐을 지나 현장에 가보니 상설무대 앞에 많은 시민들이 앉아있고 공주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이준원 공주시장, 김태룡 시의회 의장. 심대평 우리 지역 국회의원, 고광철 부의장. 박공규 도의원, 김선태 의원, 박종숙 의원, 양준모 의원, 윤구병 의원, 이충렬 의원, 조길행 의원, 오시덕 전 국회의원, 이홍복 공주시기업인연합회장, 전병호 공주상인연합회장, 이견휘 충남장애인협회장, 이태묵 공주시 관광축제팀장 등.

그리고 다수의 문화계 인물을 만났다. 최선 교수, 최기엽 음협회장, 김지광 미협 회장, 김익세 국악협회장, 신용희 금강뉴스 대표, 김자경 사진작가 등.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공주국악협회의 사물놀이, 최선무용단의 창작 무용 「천무」, 더 브라더스의 관악기 연주, 미스터 템버린의 가요 등이었다. 중간에 불꽃놀이가 대단했고, 막간을 이용한 상품권 나눠주기 행사가 재미있었다. 문화원장이 되어 처음으로 참석한 공식 문화제 행사였는데 많은 분들이 반겨주어서 좋았다.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 총재님 문화원 방문

2009년 8월 4일 오후 시간, 전 대한적십자 총재이시며 한 우리공동선실천연대 서영훈 이사장님이 우리 공주문화원을 방문했다. 마침 공주대학교에서 열리는 재외동포교육자 학술대회(연수회)에 참석하신 길에 찾으신 것이다. 오시는 길에 귀한 선물인 <한국문화대사전>(전 8권)도 가지고 와 증정 해주시었다. 서 선생께서는 원장실에서 상당 시간 담소하시면서 공주와의 인연을 되살리는 말씀을 했다. 김구 선생의 판공실장(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는 일연(一鸞) 신현상(申鉉商) 선생의 이야기와 함께 옥룡동 대춥골에 사셨던 한학자 김택(金澤) 선생의 말씀도 들려주셨다. 김택 선생은 김구 선생이 1947년 공주를 방문하실 때 직접 찾아가 만나실 정도로 덕망이 높으신 분이셨는데 <공주문화>에 김택 선생에 대한 자료도 실었으면 좋겠다는 조언도 주셨다. 선생을 따라 교포신문 독일 함부르크 주재 기자인 이영남 씨가 동행하기도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님 공주시청 방문

2009년 8월 6일 오후 3시 10분, 한승수 국무총리님이 지역민생 탐방을 위해 공주시를 공식 방문하고 살피기 위해 공주시청을 방문했다. 공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준원 공주시장이 보고회를 갖는 자리에 문화원장이 시민을 대표해서 참석했다. 자리에는 총리실 관계관들과 김동완 충남행정부지사를 비롯, 김태룡 공주시의회 의장, 오병주 한나라당 공주연기위원장, 윤달중 공주노인회장, 김혜숙 공주여성단체협의회장 등 공주시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고마나루 축제 폐막식 공연

2009년 8월 9일(일) 저녁 시간, 고마나루 여름축제 폐막식 공연을 관람했다. 마침 이날에는 우리 문화원 문화학교의 수강생들이 다수 공연에 참가하여 가곡(이광형 선생 지도), 라틴댄스와 벨리댄스(최경희 선생 지도), 사물놀이(임장묵 선생 지도), 중국어 노래(우지평 선생 지도) 등 솜씨를 자랑하고 있어 의미를 더했다. 또한 현장에서 정재욱 전임원장 내외와 모처럼 만나 자리를 같이하는 기쁨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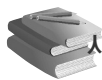
‘바다 이야기’

전 양 래

사뭇, 눈부신 우리들 바다애기를 듣자.
진득이며 다가오는
내 슬픈 이의 숨결이,
저쪽 바위 끝에서 부터 자꾸 흘러오고
양상한 버드나무 가지 끝에선
답답한 갈증이
갯내음과 더불어 미친 듯 소리친다.
거꾸로 서 있는
바다의 붉은 의지에 착잡해진
아! 이리도 세월의 험뎡거림은
거대하게 부딪쳐 오는가?
구릿빛 피부에 흔들거리는
풀빛 하늘의 짙은 음영이랑,
그 아래로 쏟아지는
햇살 따가운 순은의 눈망울이
눈부시다.
멀고 먼 설화같이 빛나는
우리들 바다애기를 듣느냐.
이미, 버려진 우리들 모습들이
까마귀 울음처럼
사방에서 모여 앉는다.
지금 우리네는 우리네가 아니다.
옛 얼굴들로 하여
구김새 없는 백색의 상의처럼
본래의 바다를 소리쳐 부르렴.
먼들, 가까운들,
목마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본래의 바다를 소리쳐 부르렴.



전양래 씨는 1950년 경남 하동군에서 태어나 공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0년도에 공주사범대학 학장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으며, 공주 백제국악원 원장, 공주시 사회정화위원 등으로 활동을 했다.
1988년 결혼과 함께 독일로 이주한 후,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주문화>를 꾸준히 즐겨 읽는 독자이다.



강병철 시집

『꽃이 눈물이다』

이 극 래 | 한국문인협회 충남지회 회장

강병철 시인은 그가 아홉 번째로 펴낸 시집 『꽃이 눈물이다』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작가의 말’로 얹어 놓고 있다.

〈구경꾼들은 쓰몽하니 바라보지만, 나는 여전히 첫사랑처럼 설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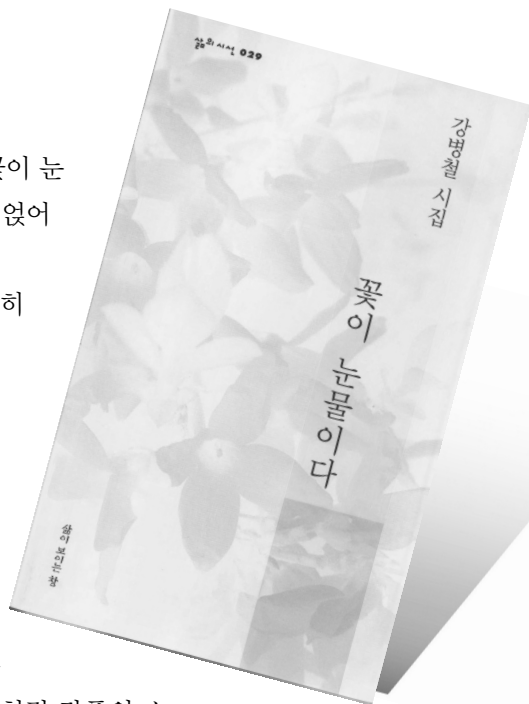
어쩌면 시의 세계로 접근하는 그의 진솔한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쏟아져 나오는 문인들의 작품들, 과연 그 질적 향상도 그렇게 많을까 한번 짚어 보아야 할 오늘 우리 문단의 현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으려는 그의 숨결이 작품 곳곳에 녹아 있다 하겠다. 그러면서도 첫사랑의 설렘처럼 작품의 소재들과 만나는 그의 참신한 눈길로 빚어낸 작품들이기에 그만큼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한다.

아울러 『꽃이 눈물이다』라는 시집의 표제처럼 매우 이채로운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안겨 주는 작품들이 많다. 그러한 이미지야말로 작품의 독창성을 살리는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꽃’이라 하면 흔히 〈아름다움, 황홀함, 꿈, 사랑, 여인〉등과 같은 통념적(通念的)인 것들만 연상하기 쉬운데 그는 똑같은 ‘꽃’이라는 소재를 가지고서도 다른 각도의 테마를 열어 놓고 있다.

강병철 시인은 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소설가로서 경륜을 쌓은 우리 문단의 총아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바로 이러한 그의 문단 활동에서 우리나라 독창성이 이 시집에서도 은은히 풍겨 나오고 있는 셈이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그의 좋은 작품집을 가지고 내 멋대로 하나의 사족(蛇足)을 붙여 놓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그의 작품집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하나의 소개 정도로 짧은 지면을 메꾸어 본 것으로 생각해 본다.



평범한 여행

김 승 숙 | 공주공업고등학교 3학년

어릴 적에 소원이 가족여행을 한 번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동생과 제가 모시고, 아빠 차를 타고 엄마가 해주는 도시락을 먹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족이 제 소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만들어 줄 엄마와는 가끔 보고, 대신 도시락을 해 주셨을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 운전을 해줄 아빠는 저희 세 식구 먹고 살기 위해 운전대를 하루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행다운 여행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닌 것 같은 댐이었습니다.

‘대청댐’ 물밖에 안 보이는 그 댐에서 저는 가족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차창 밖에 보이는 댐에 흐르는 물을 보기 위해 밖으로 고개를 내밀려는 지금은 다 컸지만 그 때는 사고뭉치 호기심뿐인 제 동생의 반짝이는 커다란 눈. 품에 안은 그런 어린 동생을 보듬어 안고서 댐보다는 전에 만났을 때보다 조금 더 커진 동생을 바라보는 엄마, 엄마를 보는 건지 댐을 보는 건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아빠의 시선. 식당에 들어서 밥을 먹는데, 식당 아줌마가 그러합니다.

“가족이 참 화목해 보여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깨

달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 지. 그날 밤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도.

여행코스도 평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차가 끝없이 늘어서 있는 곳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외갓집 근처가 차를 많이 만들어 수출하는 곳입니다. 엄마의 고향 근처라고 늘 어선 차를 보며 엄마가 말합니다. 외갓집에 들어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뵈었으면 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기억납니다. 가족 여행 중에 나올 평범하지 않은 말입니다.

동생은 할머니랑 나중에 그 댐에도 가고 밥도 거기서 먹자고 합니다. 나중에 그러하고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헤어지자는 서류에 도장을 ‘꼭’ 박으셨답니다. 여행 중에 엄마가 물었습니다. 여행인데 엄마는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냐? 학교에서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냐? 나중에 뭐 사줄까? 그리고 맨 마지막 질문이 평범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였는데, 제 동생의 답이 바로 터져 나옵니다. “아빠!” 엄마는 약간 서운하다는 듯이 “왜?” 묻습니다. 어린 동생은 당연 하다는 듯이 “아빠랑 사니까.”라고 합니다. 엄마가 이번에는 저를 보고 묻습니다. 저는 엄마가 서운할까봐 엄마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장난스레 “에이, 승숙이만 장난감 사

줘야겠네.” 합니다. 그러더니, 더 어려운 것을 물어 봅니다. “딸은 엄마랑 살래?” 장난인 듯 장난이 아닌 듯.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망설입니다. 그러더니, “그냥, 아빠가 돈 버니까. 아빠랑 살아야지.”

그리고 보니 평범한 말인데, 저희 가족에게는 절대 평범할 수가 없는 말들뿐이었습니다. 과연 부모님 모두 있는 집 아이에게 부모님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누가 택할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우리를 한번씩 안고는 차에서 내립니다. 캄캄한 밤 엄마랑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는 넷이 아닌 셋이었습니다.

우리의 여행에는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

다. 다른 가족과는 많이 다릅니다. 솔직히 여행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서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게는 그 여행이 행복했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이 같이 있었으니까, 제대로 된 가족 구성원의 모습은 그게 처음이었는데, 다시 그런 여행을 간다면, 그 말을 할 겁니다. 같이여서 행복하다고, 그리고 별 것 아니겠지만 그 때는 제가 도시락을 쌀 겁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운전하는 아빠 대신에 운전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정말 평범한 여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이기 때문에 행복한 여행을 갈 것입니다.

감상 포인트

요즘은 가족여행도 거의 승용차로 다니기 때문에 좁은 공간 안에서 몇 시간씩 같이 있는 소중함도 있지요. 가족 구성원이 다 바쁘다 보니 집에서는 각자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있는데 여행은 다르지요. 모든 것을 같이 행동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경험 외에도 여행이 주는 보너스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빠진 넷이 아닌 셋이라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은 좀 마음이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김밥을 싸서 승숙 양이 운전하고 가족구성원 전체가 여행을 가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함께이기 때문에 행복한 여행을 꼭 가게 될 것입니다. 화이팅!! (김현주)

편집후기

- 이번호 <공주문화>는 나름대로 변화를 시도한 책이다. 우선 특집 난을 신설하였으며 여러 가지 내용을 새롭게 바꾸고자 노력했다. 필자도 새롭게 선정하여 집필을 의뢰했다. 앞으로 특집은 계속해서 공주지역을 아름답게 알릴 수 있는 내용을 찾아 새롭게 계획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또한 과거지향의 내용보다는 미래지향의 내용으로 채우려고 방향을 잡을 것이다. 미미한 원고료에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귀한 원고를 주시는 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적으며, 또한 기꺼이 취재에 협조해 주신 공주시내 여러 박물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표지도 새롭게 만들어보려고 구성을 바꾸어보았다. 또한 표4에 들어가는 광고도 우리 나름대로 꾸며 보았다. 우선은 가게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회원 중심으로 광고를 만들어나가려고 한다. 점진적으로 우리지역의 기업체를 폭넓게 방문하여 기사와 같은 광고를 만들어 실을 예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광고도 하나의 작품이고 문화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는다.
- 또 한 가지 우리 문화원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들도 세심하게 수집하고 정리하여 실으려고 노력했다. 이병수 님의 노랫말과 독일에서 보내온 전양래 님의 시가 바로 그 예이다.

<공주문화> 원고모집

공주인의 문화와 정신의 향기가 담길 <공주문화>가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원고를 기다립니다.
공주를 보다 높은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즐겨 다음과 같이 원고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집 내용 - 시, 수필, 편지글과 같은 문예물

- 고장의 소식이나 자랑
- 개인이나 집단의 선행
- 특별히 알리고 싶은 직장이나 기업체의 미담

보내실 곳 - 우)314-100 충남 공주시 반죽동 184-2 공주문화원

E-mail:8529005@hanmail.net